
뉴딜투자 공동기준 실무 매뉴얼

2021. 2.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사무국



목 차

I. 개 요 1

II. 뉴딜투자 공동기준 품목 및 적용원칙 2

III. 지원사항[Help Desk 운용, 신규 품목 의견수렴 등] 8

[별첨 1] 뉴딜 품목 설명

[별첨 2] 뉴딜 품목 검토서 서식

[별첨 3] 신규 품목 추천서 서식

[별첨 4] 「뉴딜투자 공동기준」 FAQ

I 개요

□ 뉴딜투자 공동기준이란?

○ 뉴딜 분야의 효율적 금융지원을 위한 공동기준으로 40개 분야의 총 200개의 품목(디지털뉴딜 115개 품목, 그린뉴딜 85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토대로 정부부처·정책금융기관·산업계·금융투자업계 등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판 뉴딜 과제와 연관성이 높은 뉴딜 품목 선정

* 산업분야별 전문가 델파이조사·리서치 등을 거쳐 미래 유망산업 분야/품목을 선별한 공동기준(9대 테마, 46개 분야, 306개 품목으로 구성)

※ 뉴딜 품목 선정을 위한 의견 수렴 내역

- (’20. 7~8)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 등 11개 정책금융기관) 대상
- (’20. 9~) 산업계 전문가(18개 정부산하 연구기관) 및 범부처(9개 부처) 대상
- (’20.10~) 금융투자업계 전문가(펀드 운용사, LP 등 53개 기관) 대상

○ 뉴딜투자 공동기준 적용대상은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대상 선별 및 자산운용에 한정되지 않고 정책금융기관의 뉴딜 분야 금융지원 (투·융자, 보증 등) 기준으로도 활용

□ 수립 경과

○ (’20. 7.14)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 (’20. 8.20)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방안*」 발표

* 뉴딜 산업·기업을 규정할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포함

○ (’20. 9. 3)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발표

* 혁신성장 공동기준 매뉴얼을 정비·재분류하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 포함

○ (’20. 9.28)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후속조치 추진방안* 발표

*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가이드라인(뉴딜투자 공동기준)(案) 제시

○ (’20.12. 4) 「뉴딜투자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및 운영방안*」 발표

*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뉴딜투자 공동기준” 확정

II 뉴딜투자 공동기준 품목 및 적용원칙

□ 뉴딜 품목 (총 200개 품목 : 디지털뉴딜 115개 품목, 그린뉴딜 85개 품목)

구분	테마	분야	품목		
			품목명	품목코드	
디지털 뉴딜	첨단제조·자동화(A)	로봇(A02)	지능형 서비스로봇	A02006	
		항공·우주 (A03)	드론(무인기) 위성 발사체	A03001 A03003 A03004	
	화학·신소재(B)	바이오소재(B07)	의료용 화학재료(생체적용)	B07002	
	에너지(C)	에너지효율향상(C13)	원격검침 인프라	C13008	
	환경·지속가능(D)	스마트팜 (D14)	양어수경재배	D14001	
			정밀농업	D14003	
			수직농법	D14005	
			스마트 드론 파밍	D14007	
	건강·진단(E)	친환경소비재(E18)	스마트양식	D14010	
			고부가가치식품	E18005	
		차세대 진단 (E20)	암검진	E20001	
			동반진단	E20002	
			액체생체검사	E20003	
			의료/바이오진단시스템(분자진단)	E20004	
			유전자 진단예측	E20010	
			첨단영상진단 (E22)	첨단의료영상진단기기	E22004
				인공지능 원격영상진단 디지털병리학	E22006 E22008
			맞춤형의료 (E23)	스마트알약	E23005
	첨단의료기기 고령친화 의료기기	E23007 E23008			
	스마트헬스케어 (E24)	의료정보서비스	E24001		
		맞춤형웰니스케어(모바일헬스)	E24002		
	첨단외과수술 (E25)	영상가이드수술 수술용레이저 수술용로봇 홀로그래프 원격수술	E25001		
			E25002		
			E25003		
			E25004		
	정보통신(F)	차세대 무선통신미디어 (F26)	4G/5G 통신	F26001	
			차량간통신(V2X)	F26003	
			사물인터넷(IoT, M2M 포함)	F26005	
			밀리미터파(초고주파)	F26006	
			방송통신인프라	F26008	
RFID/USN			F26009		
선박통신시스템			F26010		
스마트시티			F26012		
6G 통신			F26013		
다중입출력 안테나시스템(Massive MIMO)			F26015		
능동형컴퓨팅 (F27)		인공지능	F27002		
		상황인지컴퓨팅	F27003		
		에지컴퓨팅	F27004		
		동작인식 및 분석	F27005		
		디지털트윈	F27011		
실감형콘텐츠 (F28)	인간컴퓨터상호작용(HCI)	F27013			
	스마트물류시스템	F27015			
	확장현실	F28001			
	가상훈련시스템	F28004			
실감형콘텐츠 소프트웨어 커넥티드 스마트글라스	실감형콘텐츠 소프트웨어	F28006			
	클라우드 컴퓨팅	F28009			
	가용성강화 (F29)	블록체인	F29001		
XaaS		F29002			
사이버보안		F29003			
DRM/CAS		F29005			
소프트웨어정의		F29006			
클라우드 컴퓨팅		F29009			

구분	테마	분야	품목	
			품목명	품목코드
디지털 뉴딜	정보통신(F)	지능형데이터분석 (F30)	빅데이터	F30001
			데이터시각화	F30002
			재난안전관리시스템	F30005
			지능형교통시스템	F30006
			스몰데이터	F30008
			지능형 사회간접자본 유지관리 예측 및 처방적 분석	F30009 F30010
	전기·전자(G)	소프트웨어(F31) 차세대 반도체 (G32)	게임엔진	F31004
			시스템반도체	G32004
		감성형 인터페이스(G33)	AI칩	G32005
			인간교감 소셜로봇	G33011
		웨어러블디바이스 (G34)	웨어러블 전자기기	G34002
			무선충전 고속충전	G34003 G34004
	차세대 컴퓨팅 (G36)	차세대 데이터저장	G36001	
		슈퍼컴퓨팅	G36004	
	센서·측정(H)	감각센서 (H37)	3차원이미지센서	H37001
			3차원터치기술	H37002
			후각센서	H37003
			고해상도이미지센서	H37004
			햅틱기술	H37005
			바이오센서 전자피부	H37007 H37008
		객체탐지 (H38)	생체인식	H38001
			화생방 핵폭발탐지	H38002
			관성센서기술	H38007
			센서융합	H38008
			테라헤르츠센싱	H38010
			스마트센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동적 비전센서 초소형인바디센서	H38011 H38012 H38013 H38016
	광대역측정 (H39)	라이더(LIDAR)	H39002	
		실시간위치추적시스템	H39003	
	지식서비스(I)	게임 (I40)	온라인게임	I40001
			가상현실게임	I40003
영화/방송/음악/ 애니메이션/캐릭터 (I41)		영화 콘텐츠	I41001	
		방송 콘텐츠	I41002	
		케이팝(K-pop)	I41003	
		애니메이션 콘텐츠	I41004	
		웹툰 특수효과	I41006 I41007	
창작·공연·전시(I42) 광고(I43)		무대기술	I42002	
		애드테크	I43001	
디자인 (I44)		디지털/콘텐츠 디자인	I44001	
		제품/시각정보 디자인 서비스/경험 디자인	I44002 I44003	
고부가서비스 (I45)		에듀테크	I45002	
	전자출판	I45003		
	모바일서비스	I45004		
	티커머스	I45005		
	공유경제 플랫폼	I45006		
	주문형 맞춤 보안 OTT	I45009 I45010		
핀테크 (I46)	송금·결제	I46001		
	금융데이터분석	I46002		
	금융소프트웨어	I46003		
	금융플랫폼	I46004		
	혁신금융서비스	I46005		

구분	테마	분야	품목	
			품목명	품목코드
그린 뉴딜	첨단제조자동화(A)	신제조공정 (A01)	3D머신비전	A01001
			3D프린팅	A01002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A01004
			지능형기계	A01009
			4D프린팅	A01014
		지능형 4D스캐닝	A01015	
		로봇 (A02)	미래형 제조로봇	A02003
			스웜로보틱스	A02005
		차세대동력장치 (A04)	첨단철도	A04001
			전기차/하이브리드	A04002
	스털링엔진		A04003	
	스마트카		A04004	
	전기차/하이브리드 인프라/서비스		A04005	
	고효율/친환경 선박		A04006	
	스마트모빌리티		A04008	
	수소전기자동차		A04009	
	수소전기자동차 인프라/서비스	A04010		
	화학·신소재(B)	바이오소재(B07)	생물유래소재	B07001
	에너지(C)	신재생에너지 (C10)	태양전지	C10001
			태양광발전(건물일체형 포함)	C10002
바이오매스에너지(해양,농산,산림 포함)			C10003	
지열발전			C10004	
해양에너지(발전기술 및 해양자원개발)			C10005	
풍력발전			C10006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C10008	
대형풍력발전시스템			C10009	
수열발전			C10011	
수소에너지(생산·운송·저장시설 포함)			C10012	
친환경발전 (C11)			연료전지	C11002
			초임계CO ₂ 발전시스템	C11003
		에너지하베스팅	C11004	
가스터빈 발전플랜트	C11005			
에너지저장 (C12)	정압식압축공기저장	C12001		
	에너지저장장치(ESS)	C12002		
	에너지저장클라우드	C12003		
	에너지가스변환	C12004		
	리튬이온배터리	C12005		
	양성자전지	C12006		
	슈퍼커패시터	C12007		
	냉온열에너지저장	C12008		
	바이오배터리	C12009		
	배터리에너지관리체계	C12010		
레독스 흐름전지	C12011			
에너지효율향상 (C13)	가정용에너지관리	C13001		
	제로에너지빌딩/친환경에너지타운	C13003		
	폐열회수	C13007		
	독립형해수담수화	C13009		
	지능형공조시스템	C13010		
	분산에너지시스템	C13015		
스마트그리드	C13016			
가상발전소	C13019			

구분	테마	분야	품목	
			품목명	품목코드
그린 뉴딜	환경·지속가능(D)	스마트팜 (D14)	농업용미생물	D14004
			생물비료	D14006
			곤충사육	D14008
			스마트종자 개발·육종	D14009
		환경개선 (D15)	정삼투	D15001
			바이오필름수처리	D15002
			친환경공조시스템	D15005
			기름유출방제	D15007
			대기오염관리	D15008
			이산화탄소 포집/저장/배출원관리	D15010
			토양정화	D15011
			원전플랜트 해체	D15012
	통합환경관리서비스	D15013		
	자원효율관리서비스	D15014		
	친환경 패키징	D15015		
	유니소재화 제품	D15016		
	환경보호 (D16)	전자폐기물 업사이클링	D16001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D16002	
		방사성폐기물 처리	D16003	
		폐자원에너지	D16004	
막여과폐수처리		D16005		
(하폐수처리수재사용, 수생태계복원)				
소음관리		D16006		
실내공기질 관리		D16007		
도시광산		D16008		
재제조		D16009		
신재생발전시스템 재자원화	D16010			
건강·진단(E)	친환경소비재(E18)	유전자화장품	E18001	
	차세대치료 (E19)	개량신약 혁신신약	E19013 E19014	
정보통신(F)	실감형콘텐츠(F28)	스마트홈	F28005	
전기·전자(G)	차세대 반도체(G32)	전력반도체소자	G32003	
	능동형조명 (G35)	OLED(LED)조명 스마트조명	G35001 G35002	
센서·측정(H)	객체탐지(H38)	비접촉모니터링	H38006	

□ 적용원칙

- 기업 또는 프로젝트가 영위하는 (계획)사업 또는 보유기술 단위별로 디지털·그린 뉴딜 품목 설명(별첨1 참조)과 부합 여부로 판단
 - 또한, 뉴딜 산업 생태계 전반에 폭넓게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 또는 프로젝트 영위 사업(기술, 제품 등)이 뉴딜투자 공동기준 전·후방산업에 해당될 경우에도 품목 적용 허용
 - (후방산업) 뉴딜 품목 관련 핵심 기술·소재·부품 연관 프로젝트 또는 사업 영위 기업(단, 범용성 부품은 제외)
 - (전방산업) 뉴딜 품목을 활용한 프로젝트 또는 사업 영위 기업(단, 도·소매, 단순 운송은 제외)
 - (계획사업) 뉴딜 품목 관련 R&D실적(특허 출원, 정부 인증 등) 보유 기업(단, 실용화 단계인 경우에 한정)



※ 품목 적용 불가 예시

- ① 뉴딜 품목과 관련이 적은 범용성 제품을 생산하여 뉴딜 품목 관련 기업에 납품하는 경우
- ② 뉴딜 품목을 이용하여 도·소매업만 영위하는 경우
- ③ 뉴딜 품목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경우

○ 사용자는 ①연관성의 원칙, ②차별성의 원칙, ③가능성의 원칙에 따라 뉴딜 공동기준 해당 여부를 판단

① (연관성) 해당 프로젝트 또는 기업의 사업분야, 보유기술 또는 제품이 뉴딜투자 공동기준 품목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검토

* (직접적연관) 품목의 설명과 부합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
(간접적연관) 품목의 전·후방 산업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

② (차별성) 연관성과 함께 기업의 사업분야, 보유기술 또는 제품이 가지는 차별성*에 대해 검토

* 범용성 제품·부품이나 도·소매와 같은 단순 사업형태가 지양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비즈니스 모델의 차별성, 기술 또는 제품의 우수성 등을 포함

③ (가능성) 신규 사업 또는 신제품의 경우 관련 R&D 실적(특허출원, 정부인증 등)과 함께 상용화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검토

III 지원사항(Help Desk 운용, 신규 품목 의견수렴 등)

□ Help Desk 운용

- (운용기관)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
 - 사무국내 정책금융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뉴딜투자 공동기준 자문 심의회」 운영
 - *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실무지원 조직으로 혁신성장공동기준 제·개정 주관
- (지원대상)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자(펀드 운용사)
- (지원사항) 투자자(펀드 운용사)가 요청할 경우 뉴딜투자 공동기준 품목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제공
 - ☞ 원칙적으로 뉴딜 분야 금융지원(투·융자, 보증 등) 품목 적용 여부는 각 기관이 본 매뉴얼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판단
- (요청방법) 사무국 홈페이지(www.newgi.org)에서 온라인 접수

The screenshot shows a web form for requesting a Help Desk. The page header includes 'KDB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 and navigation links.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Help Desk 요청' and contains two sections: '신청인 정보' (Applicant Information) and '회사 개요' (Company Overview). The '신청인 정보' section includes fields for '소속기관' (Affiliated Institution), '성명/직급' (Name/Title), '연락처' (Contact), and '이메일' (Email). The '회사 개요' section includes fields for '회사명' (Company Name), '설립일자' (Institution Date), '대표자' (Representative), '기업규모' (Company Size), and '대분류' (Major Category). A note indicates that the date is in 'YYYY.MM.DD' format.

신청인 정보			
소속기관	<input type="text" value="소속기관명 입력"/>	성명/직급	<input type="text" value="성명 입력"/> / <input type="text" value="직급 입력"/>
연락처	<input type="text" value="선택"/> <input type="text"/>	이메일	<input type="text" value="이메일 주소 입력"/>
회사 개요 <small>(단위: 억원)</small>			
회사명	<input type="text" value="회사명 입력"/>	설립일자	<input type="text" value="2020.01.01"/>
대표자	<input type="text" value="대표자 입력"/>	기업규모	<input type="text" value="선택"/>
<input type="text" value="대분류 선택"/>			

- (의견회신) 품목 적용 사례 확인 등을 통해 품목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1주 이내에 투자자 앞 회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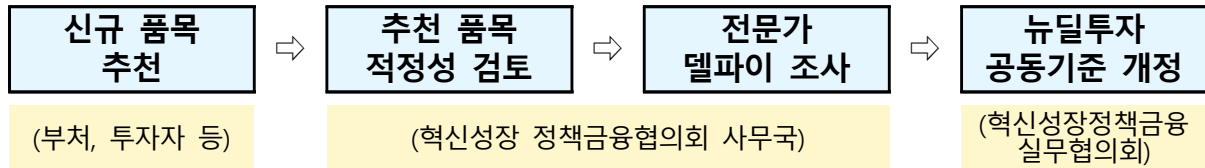
□ 신규 품목 의견수렴

- (목적)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디지털·그린 뉴딜 세부과제 지원을 위한 품목 누락 방지 및 다양한 분야로의 효과적인 투자 유도를 위해 시장참가자의 의견 개진 수단 마련
- (추천방법) 사무국 대외 홈페이지(www.newgi.org)에서 품목 추천

The screenshot shows the 'New Deal Investment Standard' form on the KDB website. The form is titled '품목 제안 창구' (Product Recommendation Channel) and includes the following sections:

- 신청인 정보 (Applicant Information):**
 - 소속기관 (Affiliated Organization): 소속기관명 입력 (Input affiliated organization name)
 - 성명/직급 (Name/Title): 성명 입력 / 직급 입력 (Input name / Input title)
 - 연락처 (Contact): 선택 (Dropdown menu)
 - 이메일 (Email): 이메일 주소 입력 (Input email address)
- 추천 품목 (Recommended Product):**
 - 구분 (Category): 구분 선택 (Dropdown menu)
 - 추천 분야/품목 (Recommended Field/Product): 추천 분야/품목 입력 (Input recommended field/product)
 - 품목 설명 (Product Description): 품목 설명 입력 (Input product description)

※ 신규 추천 품목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新품목으로 추가여부 결정



- (검토) 사무국, 추천 품목에 대한 적정성* 검토
 - * 디지털·그린 뉴딜 세부과제와의 연관성, 기존 품목과의 차별성 등
- (조사) 혁신성장 공동기준 자문단* 등을 활용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 * 공동기준 9대 테마별 3~8명으로 구성된 산업 전문가(30명) 집단
- (확정) 「뉴딜투자 공동기준」 개정* 및 신규 품목 확정
 - * 업무 효율성을 감안, 혁신성장 공동기준 개정 시기에 맞춰 일괄 조정

□ 「뉴딜투자 공동기준」 FAQ (별첨4)

- 뉴딜투자 품목 해석·적용과 관련한 정책금융기관 상담사례, Help Desk 자문사례 등을 재구성하여 FAQ 작성
- 반기당 1회 업데이트 후 사무국 대외 홈페이지(www.newgi.org)에 게시

별첨1

뉴딜 품목 설명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디지털 뉴딜	첨단제조·자동화 (A)	로봇 (A02)	지능형 서비스로봇 (A0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 서비스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인식(Perception) 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Cognition) 하여, 자율적으로 동작(Manipulation) 하는 로봇을 의미하며, 인공지능 등 IT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가사 지원,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간 지향적인 로봇을 말함 ▣ 지능형 서비스로봇은 용도별 구분이 아닌 성능에 따라 구분되며, 넓은 의미로는 현재 개발된 로봇 중에서 지능의 레벨이 높은 첨단 로봇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임 ▣ 단순 반복 작업을 주로 수행하는 산업용 로봇과 달리 인공지능, 휴먼인터페이스, Ubiquitous 네트워크 등의 IT 기술이 집적된 Fusion System으로 1가구 1로봇 시대라는 무한한 잠재적 시장을 겨냥하여 선진 각국은 주도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산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음
			드론(무인기) (A03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론(무인기)은 지상에서 전파로 조종하는 무인항공기로, 정찰이나 폭격 등 군사용으로 개발되었으나 최근에는 상업용/레저용으로 GPS와 센서, 카메라 등을 장착하여 소비자에게 주목을 받고 있음 ▣ 드론이라는 용어는 RC(Remote Control), UAV(Unmanned Aerial Vehicles), 쿼드콥터(Quadcopter) 등과 혼용해서 사용됨 ▣ 헬리콥터 형태의 레저용 드론과 군수용 등 특수 목적에 사용되는 소형 고정익 항공기 (경비행기) 형태로 분류될 수 있으며, 구동 엔진으로 단발/쌍발 프로펠러나 터보 프롭 엔진, 전기모터 등을 사용하는 드론과 제트 엔진을 사용하여 기존 항공기와 비행 메커니즘이 동일한 드론으로 분류될 수 있음
		항공·우주 (A03)	위성 (A03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성은 지구 둘레를 공전하는 인공적인 물체로 궤도의 고도에 따라 정지위성과 이동 위성으로 구분됨 ▣ 위성산업은 위성 제작, 지상장비, 발사 서비스 및 방송·통신, 지구·기상관측, 우주 환경 측정 등 다양한 영역에의 위성 활용 서비스를 포함한 산업으로, 우주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발사체 (A03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사체(Launch Vehicle)는 소정의 임무를 수행하는 탑재 부하(Payload)(인공위성, 달 착륙선, 우주인, 우주망원경 등)를 지상으로부터 우주의 특정 궤도에 실어 나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수단임 ▣ 발사체는 발사대(Launch Pad) 및 지상통제소(Ground Station)와 같은 시설물과 함께 하나의 발사시스템(Launch System)을 구성함 ▣ 발사체는 연소가스의 운동량 변화나 반작용으로 속도 변화를 일으키거나 운동저항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추력(推力, Thrust)을 내는 비(非) 공기흡입식 엔진(Non-airbreathingEngine)에 의해 추진(Propulsion) 됨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디지털 뉴딜	화학·신소재 (B)	바이오소재 (B07)	의료용 화학재료(생체적용) (B07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용 화학재료는 인체 내에서 면역거부반응 없이 반영구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로 조직의 기능을 치환, 대체하기 위하여 체내에서 일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주위 생체 조직과 직접 접촉하는 물질이며, 재료의 종류에 따라 금속, 세라믹, 고분자, 복합재료 등으로 나뉨 ▣ 인체는 대단히 미세하고 조직적인 역학 관계를 가지고 있어 개발이 쉽지 않으며 상용화되기까지 큰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지만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선점한다면 고부가가치 산업인 조직공학 시장까지 선점할 수 있어 향후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에너지 (C)	에너지효율향상 (C13)	원격검침 인프라 (C13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검침 인프라(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는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원격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검침하고, 양방향 정보교환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함 ▣ 검침된 에너지 사용량 분석을 통해 소비성향, 수요분석, 에너지 절감 및 대책 수립 등 효율적 에너지 활용 서비스를 제공함
	환경·지속가능 (D)	스마트팜 (D14)	양어수경재배 (D14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어수경재배(Aquaponics)는 수산양식(Aquaculture)과 수경재배(Hydroponics)의 합성어로 물고기 배설물의 질소 성분을 작물의 비료로 활용하고 작물에 의해 자연정화된 물을 양어장에 공급해 재이용하는 순환형 친환경 농법임 ▣ 양어수경재배는 미생물이 물고기의 분비물과 배설물을 분해하는 탈질화 과정에서 얻어지는 자연 비료를 사용하여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함. 또한 양어 수경재배로 생산된 농산물은 화학비료 없이 재배되기 때문에 조직이 치밀해 화학비료를 이용해 키운 농산물보다 질감이 탄탄하며 부패 속도가 느린 장점이 있음
			정밀농업 (D14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농업은 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수익을 최적화하는 새로운 농업 기술을 말함 ▣ 재래식으로 일정량을 투입하는 대신 토성, 토양비옥도, 지형, 잡초, 병해충 상태에 따라 양분 요구량 등의 투입량을 가변적으로 변화시키는 영농방법임 ▣ 정확한 위치, 해당 위치에서의 정확한 작업을 결정하는 기술적 요소들이 결합하여 고도의 기계화와 함께 수행함 ▣ 정밀농업을 위해 위성항법장치(GPS), 병해충 발생 감지 및 토양특성 측정 센서, 공간적 가변성 내에서 시간적 변화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리정보체계(GIS), 농업 자재의 투입을 조절하는 변량률 기술(Variable-rate technology) 등이 필요함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디지털 뉴딜	환경 ·지속가능 (D)	스마트팜 (D14)	수직농법 (D14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직농법은 수직으로 쌓인 층이나 구조물의 표면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기술로 도시의 고층건물에서 농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농법을 의미함 ▣ 수직농법의 장점은 계절이나 태풍·홍수 등의 자연재해의 영향을 덜 받으며, 물의 사용량도 90%까지 절감 가능함 ▣ 또한,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전염병이나 식품오염의 문제도 없고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주문형 생산 시스템 실현이 가능함
			스마트 드론 파밍 (D14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드론 파밍은 환경 분석 및 병충해/수확량 등의 농작물 상태를 파악하고 농약 살포 및 병충해 억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드론 기반의 스마트 팜 기술 ▣ 드론 기술이 발달하면서 넓은 대지에 농작물의 상태를 모니터링 후 획득된 영상을 기반으로 병충해를 파악하고 농작물의 성장상태를 파악하는 일을 진행하며, 필요시 드론 기반의 자율주행 농약 살포 및 병충해 방제 시스템 탑재 운영 등을 수행함 ▣ AI 기술과 접목되면서 드론이 획득한 데이터로부터 농지의 위치에 따른 농작물 수확량을 예측하며, 유해 동물/곤충들이 싫어하는 특정 신호를 내보내어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 일 등이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그 활용도는 더 높아질 것이라 기대됨
			스마트양식 (D140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양식이란 양식수산물의 효율적·친환경적 생산을 위한 최적 생육 알고리즘 구축과 양식수산물의 생산-가공-판매에 있어 최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사물인터넷(IoT), IC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양식산업 시스템을 자동화·지능화한 것으로, 기존의 양식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면 스마트 양식산업은 기술과 자본 집약적 지식 산업으로 볼 수 있음 <p>* 스마트양식의 핵심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어류의 먹이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육환경(수온·용존산소·염분)에 따라 적정 사료를 공급하는 기술 ② 수중영상을 통해 어류의 크기와 무게를 측정하는 기술, 수중 산소가 부족할 때 용존산소를 자동으로 공급·조절하는 기술 ③ 재해에 대비하여 양식장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기술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디지털 뉴딜	건강 진단 (E)	친환경소비재 (E18)	고부가가치식품 (E18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가가치식품이란 BT, IT, NT 등의 첨단기술 및 문화·관광 등 타 분야와 접목되어 내재가치를 증대시키고 식품안전 및 웰빙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와 부합하는 새로운 식품을 의미함 ▣ 고기능성, 친환경 안전, 특수목적 (우주식품, 레저 식품 등), 천연소재 (화학합성물무첨가), 개인 맞춤형 식품 등이 이에 해당(특히 한식과 전통음식 등 해외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농수산 가공제품)됨 <p style="margin-left: 20px;">(예시) [기능성 식품] 개인 맞춤형 식품, 천연첨가물, 대체식품소재, 특수목적 식품 등 [친환경 안심식품] 유기식품, 식품 안전인자 검지시스템, 식품 위해인자 저감 시스템 등 [웰빙 전통식품] 저염화 전통 발효식품, 명품 천일염, 건강기능 강화 전통식품 등 [유비쿼터스 식품시스템] 유비쿼터스 식품 품질 센서, 지능형 식품 저장·포장, 식품유통 환경조절 시스템 등</p>
		차세대 진단 (E20)	암검진 (E20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검진(Cancer Screening)은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 또는 진찰을 말함 ▣ 암의 확진과 진행상태의 결정은 의사의 진찰, 내시경검사, 세포검사, 영상진단검사, 핵의학검사, 종양표지자 검사, 조직·세포병리검사 등 여러 검사를 복합적으로 실시하여 의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함 ▣ 기존에는 주로 영상진단을 통해 암세포를 발견했지만 최근에는 혈액으로 간암, 폐암, 대장암 등의 검진을 할 수 있는 검사법이 도입되고 있음
			동반진단 (E20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반진단(Companion Diagnostics)은 약물이 인체에 미치는 효과를 감시할 수 있는 기술로서, 신규 약물 또는 기존 약물 사용용도의 확장에 있어서 약물 치료와 진단검사를 병행하여 약물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진단기술임 ▣ 최근에는 동반진단을 이용한 맞춤형의료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에 따르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보다 안전한 처방이 가능함 ▣ 개인의 유전 정보를 통해 발병 위험, 예후, 재발 가능성 등을 예측함으로써 치료 중심에서 예방중심의 보건의료 전략이 가능해짐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디지털 뉴딜	건강 ·진단 (E)	차세대 진단 (E20)	액체생체검사 (E20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체생체검사는 혈액 등 체액을 활용한 검사로 암을 조기 진단하는 기술을 말함 ▣ 액체생체검사는 절개 등의 침습적 절차 없이 간편하게 환자의 체액만으로 검사와 진단이 이루어져 그만큼 검사 결과 도출 속도가 빠르고 질병에 대해 다각적 분석이 가능함 ▣ 유전체 분석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머지않아 여러 질병의 동시 분석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의료/바이오진단시스템 (분자진단) (E20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바이오진단시스템(분자진단)이란 인체 및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자 수준의 변화를 수치나 영상으로 평가하는 기법으로, DNA·단백질 등을 분석하며 BINT* 융합기술로 조기 예진, 진단 등을 수행함 * BINT : BT(바이오기술), ICT(정보통신기술), NT(나노기술) ▣ 판매 제품의 형태에 따라 장비, 시약 및 서비스로 구분되고, 진단되는 대상에 따라 감염질환, 암, 혈액진단, 유전진단 등으로 세분화됨 (예시) 질량분석 기반 초고속 디지털 분자진단시스템, 소형/의료용 질량분석 기반 진단기기, 신기술 융합형 분자진단 시스템, 질환의 유무 및 진행상황을 반영하는 바이오마커 등
			유전자 진단예측 (E20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전자 진단예측은 생명체의 건강상태 및 질병의 진단예측을 위해 수행되며, 생물체로부터 검사 대상물을 획득한 후 유전자를 분석*하여 각종 질병 및 생물적 특성의 확률을 진단예측하는 기술을 말함 * 유전자를 분석하기 위해서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등의 기술을 활용함 ▣ DNA에 기반한 예측으로 질병 치료에 큰 기여가 기대되나, 유전자 차별을 비롯한 도덕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첨단영상진단 (E22)	첨단의료영상진단기기 (E2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의료영상진단기기는 의학적으로 유용한 모든 생체정보를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측정, 영상화하는 조기진단 분야의 첨단기술임 ▣ 한 개의 장비에 두 개 이상의 영상 측정방식을 합성함으로써 영상 품질을 향상하는 의료용 복합 영상 기술, 방사선 영상에 정량적 분석을 접목함으로써 진단의 정교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멀티미디어 영상의학 등을 포함함 (예시) 자기 공명 영상장비(MRI), 컴퓨터 단층촬영장비(CT), 양전자 컴퓨터 단층촬영기 (PET-CT) 등이 있음
			인공지능 원격영상진단 (E2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 원격영상진단이란 X-ray, CT 및 MRI 등 방사선 분야의 화상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판독하는 진단법으로 의료분야 혁신성장 유망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 인공지능 시스템이 저장된 의료차트, 환자의 의료영상 이미지 및 의학 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도출한 질병 진단 정보를 영상전문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의사의 판독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함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디지털 뉴딜	건강 ·진단 (E)	첨단영상진단 (E22)	디지털 병리학 (E2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병리학은 조직검사 등에서 사용되는 슬라이드를 디지털 이미지로 전환하여 분석하고 저장하는 기술을 말함 ▣ 디지털 병리학은 고해상도 카메라로 세포, 조직, 장기의 샘플을 스캔한 후 초고화질 디지털 이미지로 저장하고, 저장된 이미지는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원하는 샘플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함 ▣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진단 및 진료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병리학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과정에 동참할 수 있음
		맞춤형의료 (E23)	스마트알약 (E23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알약은 각종 센서가 부착되어 우리 몸 안의 영상을 무선으로 전송하는 기술로, 위장 내시경 등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예시) 작고 소화하기 쉬운 센서를 음식 성분으로 제작하여 환자의 알약에 부착하고 환자가 알약을 복용 시 위의 유동에 의해 활성화된 센서가 보내는 초저전력의 개별 디지털 신호를 감지하여 환자의 건강상태 확인, 약물의 전달 및 효과 분석 등이 가능
			첨단의료기기 (E23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의료기기란 혁신적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진단, 치료 및 검사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의료기기 연구 분야를 말함 ▣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 및 3D프린팅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범위가 넓고 종류가 다양함
			고령친화 의료기기 (E23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친화 의료기기는 고령자 및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이 보고, 말하고, 걷는 등의 일상적인 활동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기기를 말함 ▣ 목발, 휠체어 등 간단한 기구부터 청각보조기, 독서기 등 IT기술이 결합된 장치까지 그 범위가 넓고 종류가 다양함 ▣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기기와 편의성뿐만 아니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제품이 개발되고 있음
스마트헬스케어 (E24)	의료정보서비스 (E24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정보서비스란 의료·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환경, 생활 습관에 관한 데이터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폭넓게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 및 시스템 기술을 총칭함 ▣ 의사나 간호사의 진료현황부터 의약품 관리, 재무관리, 환자관리 및 각종 의료영상정보, 그 밖의 병원행정 업무 등 제반적인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을 말함. 이러한 정보는 전자 의무기록(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처방전달 시스템(OCS:Order Communication System), 영상 저장 시스템(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등의 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이용됨 ▣ 의료 분야의 데이터는 양적으로도 방대하지만 종류, 형태 및 속성이 각 기관과 질병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데이터 특성 분석을 통한 의미 해석과 他 데이터와의 융합을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디지털 뉴딜	건강 진단 (E)	스마트헬스케어 (E24)	맞춤형웰니스케어 (모바일헬스) (E24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웰니스케어(모바일헬스)는 개인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해 S/W, 콘텐츠, ICT 등의 디지털 기술과 헬스케어, 라이프스타일, 유전체 정보 등이 융합되어 새로운 생태계를 가진 보건의료제품 및 서비스 시장을 형성하는 분야를 말함 (예시) 개인 건강정보 통합관리 플랫폼, 유전체 정보 제품화 서비스 DB,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 빅데이터 기반의 건강관리 지원 시스템 SW, 의료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 스마트헬스케어 서비스, 실버형 라이프케어 서비스, 종합 생활가이드 서비스, 웨어러블 기기, 의료기기
		첨단외과수술 (E25)	영상가이드수술 (E25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상가이드수술은 수술 과정에 영상장비를 도입하여 정확도를 개선시키는 기술로, 내시경 카메라에서 증강현실 기법까지 다양한 영상장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음 영상가이드수술은 단순하게 수술 부위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에서 수술하려는 부분의 영상을 실제 수술 부위에 정합해 보여 주어 정확하게 시술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임 수술 전에 가상공간에서 환자의 기관이나 조직들을 구분해 가시화하고 조작해 봄으로써 어떻게 시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수술 중에는 미리 촬영해 둔 환자의 MRI나 CT 영상 등의 데이터와 수술 과정에서 얻어질 데이터를 합쳐 실제 수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기술이 있음
			수술용레이저 (E25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술용레이저는 레이저를 사용하여 조직을 치료하거나 제거하는 기술로 외과용 메스보다 정교한 움직임이 가능하고 출혈이 훨씬 적은 장점이 있음 안과에서는 라식이나 라섹 수술 등의 시력 교정과 같은 정교한 작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피부과에서는 점을 빼거나 흉터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
			수술용로봇 (E25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술용로봇은 미세조정이 가능한 로봇과 컴퓨터 가이드를 사용하여 수술하는 장비로 최소 침습수술*이 가능하며,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음 * 최소침습수술 : 기존에 수술방법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지만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술 방법 로봇 수술은 원래 군사용으로 개발되었는데 전투 중 전방에 있는 환자를 후방의 의사가 수술해야 할 때 또는 우주인이 급하게 수술이 필요할 때 지상의 의사가 수술할 수 있도록 고안
			홀로그래프 원격수술 (E25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홀로그래프 원격수술은 홀로그래프 원격전송 기반으로 모든 3차원 시각인지를 자극하여 시각 지각 오류 없이 원격수술이 가능한 기술로 고화질 3차원 입체영상(홀로그래프)을 통해 환자의 정확한 상처 위치, 이상 부위 등을 확인하고 신속·정확하게 환자를 치료 가능 홀로그래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영상 시스템으로 모든 영상정보를 추출, 전송 및 복원하여 실제 생체의 3차원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하여 전송 및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며, 특히 기존 영상 촬영 및 전송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했던 '깊이' 정보의 획득·전송·디스플레이가 가능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디지털 뉴딜	정보통신 (F)	차세대 무선통신미디어 (F26)	4G/5G 통신 (F26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교 주파수 분할을 다중화 방식으로 이용하는 4세대 무선 이동통신 시스템(4G)과 MT-2020 요구사항(4G 대비 약 10배 이상의 성능 향상)을 만족시킬 수 있는 5세대 무선 이동통신시스템(5G)을 말함 ▣ 장소와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목표를 갖고 셀(Cell) 가장자리나 중첩된 셀 간 경계에서 발생하는 통신품질 열화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4G는 전송속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5G는 전송속도 향상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IoT) 시대를 대비한 다수 기기 접속 및 자율주행차를 위한 서비스 지연시간 축소를 목표로 표준화가 추진됨 ▣ 모바일 3D 영상(홀로그래프) 단말 및 서비스, 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등 연관 산업·시장 창출이 전망됨
			차량간통신(V2X) (F26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간통신(V2X:Vehicle to everything)은 차량과 차량 사이의 무선통신 기술로서, 차량과 인프라 간 무선통신(V2I:Vehicle to Infrastructure), 차량 내 유무선 네트워킹(INV:In-Vehicle Networking), 차량과 이동단말간 통신(V2P:Vehicle to Pedestrian) 등을 총칭함 ▣ 차량간통신를 이용하여 차량과 도로의 정보 환경 접근성, 안정성, 편리성 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사물인터넷 (IoT, M2M 포함) (F26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인터넷은 기계와 기계 사이의 통신으로 기계·센서·컴퓨터 등 다양한 장치들이 유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게 하는 기술을 말함 ▣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임 ▣ 개별 장치들의 기능이나 성능을 개선시켜 개별 장치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능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예시) [공공 IoT] 스마트 시티, 개인 IoT : 스마트 웰니스, 산업 IoT :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등
			밀리미터파(초고주파) (F26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리미터파(mmWave) 통신은 30~300 GHz의 고주파 대역의 1~10mm 수준의 파장을 갖는 전자기파를 이용한 통신 기술임 ▣ 밀리미터파는 전파의 특성상 파장이 짧아 대역폭을 넓게 사용할 수 있어 정보를 대량으로 전송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짐 ▣ 밀리미터파는 저주파 대역에 비해 전파 손실이 크고 회절과 굴절, 반사 등에 따른 다중 경로 현상이 강한 특징으로 인해 주로 위성통신, 전파천문, 고해상도 레이더, 마이크로파 분광학, 근거리 무선통신 등에 적용되어 왔으나, 최근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5G 이동통신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음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디지털 뉴딜	정보통신 (F)	차세대 무선통신미디어 (F26)	방송통신인프라 (F26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인프라란 ①DTV, IPTV, 실감미디어 등의 차세대 미디어 서비스 및 관련 장비, ②실감 IPTV 등 신개념 융합서비스를 위한 융합 네트워크 인프라 및 플랫폼, ③광대역 네트워크 서비스 및 홈네트워크 시스템 등을 포괄함 ■ 사실감과 현장감을 증가시킨 유무선/모바일 기반의 개인 참여형 고품질 IPTV 서비스, 실감 DTV 방송* 및 방송장비, 차세대 IPTV** 등 관련 산업 및 기술이 발전 중임 * 3DTV, UHDTV, 실감 DTV 콘텐츠 ** IPTV 헤드엔드 시스템, 모바일 IPTV 전송 시스템, IPTV 서비스 플랫폼, 지능형 융복합 IPTV 단말
			RFID/USN (F26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란 상품이나 사물에 대한 식별 정보를 작은 반도체 칩에 저장하고 전파를 이용하여 식별정보를 인식하는 전파 태그를 말함 ■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이란 환경 정보를 인식·제공하는 센서노드를 통해 수집 정보를 통합·가공하여 부가 정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정보 서비스 인프라 기술을 말함 ■ 개별물품 인식 RFID, 광역 USN 통신시스템, 지능형 RFID/USN 미들웨어, 지능형 에너지 절감용 USN 시스템, 사회기반시설 모니터링 USN 시스템, 500 MHz 이상의 광대역 (Bandwidth)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저전력 단거리 통신기술 등을 포함함
			선박통신시스템 (F26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통신시스템은 선박 내 통신 인프라(SAN)*, 이동/위성통신 시스템(MoSIN), 지능형 항해 정보시스템(INIS)** 등 선박 통신과 관련된 장비 및 인프라를 총괄함 * SAN :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선박 환경에 적용하여 선박 내에서 통신 음영 지역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 ** INIS : 해상사고의 방지 및 항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시스템
			스마트시티 (F26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시티는 센서와 통신모듈,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이용하여 교통, 주거, 환경, 발전, 상하수도, 의료, 교육 등을 모니터링하여 도시의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의미함 ■ 도시의 인프라를 네트워크화하여 주거, 환경, 교통 등으로 인한 도시문제를 해소하고 도시 운영 및 서비스를 최적화하여, 경제를 성장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디지털 뉴딜	정보통신 (F)	차세대 무선통신미디어 (F26)	6G 통신 (F26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G 통신은 수 억개 ~ 수 조개 이상의 디바이스가 유무선으로 연결되는 초공간/초지능/초연결 모바일 세상에서 초고화질/가상현실/증강현실/홀로그램(Real 3D) 영상을 이동 중에도 실시간/초저지연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무선통신 기술을 말함 ▣ 6,000km/h 이하의 속도로 이동 중에도 끊김 없는 실시간 실감 영상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무선통신 시스템임 ▣ 셀 내에 존재하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1 Gbps ~ 10 Gbps 정도의 평균 데이터 전송률을 지원해줄 수 있는 무선통신 시스템임 ▣ 5G 통신기술 (IMT-2020) 대비 1000배 정도의 단말/네트워크 장비의 에너지 효율성을 가진 무선통신 시스템임 ▣ 제곱 킬로미터 당 천만 개 이상의 무선 디바이스들의 연결을 지원하는 무선통신시스템임
			다중입출력 안테나시스템 (Massive MIMO) (F26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입출력 안테나 시스템(Massive MIMO)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하기 위하여 수십 개 이상의 대량 안테나를 사용하는 다중 입력 다중 출력 기술을 말함 ▣ 5G 이동통신을 구현하는 주요 기술 중 하나이며, 이 외에도 대용량 정보 전송(고품질 영상 및 비디오, 입체영상 등)에 유용함 ▣ 5G 이외에도 V2I(Vehicle to Infra) 등 자율주행 관련 정보 송수신에 적용 확대 중임
		능동형컴퓨팅 (F27)	인공지능 (F27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언어의 이해 능력 등을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것으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 인공지능은 ①데이터 추상화 기술과 인간이 구축한 방대한 지식체계(도서, 이미지 등)를 이용하기 위한 ②빅데이터 기술, 지식체계를 스스로 학습하기 위한 ③기계학습이 인공지능 구현의 핵심임 ▣ 인공지능은 장면 인식, 문장 묘사, 음성 및 동작 패턴을 인식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어, 제조, 의료,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음
상황인지컴퓨팅 (F27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인지컴퓨팅이란 센서를 이용해 상황*정보를 수집하고 인식하여 상황에 적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을 말함 * 사용자의 신원, 공간, 시간, 환경(온습도, 조도, 소음 등), 서비스, 시간, 장애 상황 등을 모두 포함함 ▣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생활패턴, 주변 환경 등의 정보를 종합해서 상황을 인지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임 ▣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센서와 수집된 정보를 플랫폼으로 전송하는 네트워크, 전송받은 정보를 분석하고 각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공하는 분석 플랫폼 기술력이 필요함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디지털 뉴딜	정보통신 (F)	능동형컴퓨팅 (F27)	에지컴퓨팅 (F27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지컴퓨팅은 응용프로그램 및 콘텐츠 공급자에게 무선통신에서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 ▣ 응용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실시간 무선통신상 통신 지연을 최소화하고 광대역 전송을 용이케 하는 특성을 보유함 ▣ 메인 데이터센터로부터 멀리 떨어졌을 때 에지 또는 인접 데이터센터가 지연을 감소시키고 전반적인 성능을 강화하면 서버의 부담을 줄이고 사용자에게 더 나은 경험 제공 가능 ▣ 클라우드 컴퓨팅은 노트북, 핸드폰, 태블릿, 게임기 등 모든 디지털 기기들이 각각 서버와 연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반면, 에지 컴퓨팅은 중간 매개 역할을 맡은 노트북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파일을 먼저 다운로드한 뒤 노트북과 연결된 핸드폰과 태블릿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함
			동작인식 및 분석 (F27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작인식 및 분석은 컴퓨터 비전, 고속 이미지 인식 및 머신 비전에 활용되는 기술로, 모션센서, 이미지센서, 적외선센서 등 다양한 센서를 이용해 사용자의 움직임을 인식하고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기술임 ▣ 대상물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방법에는 센서를 부착하여 모션을 인식하는 접촉식 모션인식과 컴퓨터 비전을 활용하는 비접촉식 모션인식으로 구분됨 ▣ 동작인식 및 분석은 사용자의 자세 및 행동을 인식하고 분석하여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에서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음
			디지털트윈 (F27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트윈은 물리적 대상의 형상, 성질, 상태 등의 정보를 가상공간에 동일하게 구현하는 것으로, 제품 생산 이전에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제품의 상태, 생산성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제조업체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음 ▣ 제조업 분야, 발전 설비 최적화 분야, 도시 계획 및 운영 분야, 물류 운영 모니터링 및 최적화 등에 적용될 수 있음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디지털 뉴딜	정보통신 (F)	능동형컴퓨팅 (F27)	인간컴퓨터상호작용(HCI) (F27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컴퓨터상호작용(Human Computer Interaction)은 인간과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전산학, 심리학 및 산업공학 등의 분야가 연관되어 있음 ■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기능과 사용 편의성(Usability), 안전성(Safety), 효율성(Efficiency) 및 효과성(Effectiveness)을 고려하여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기술사업화를 위해선 HCI 장치와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 및 상호작용 모델에 대한 기술, 사용자경험(UX)* 기술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p>* UX : 사용자가 제품, 서비스 혹은 시스템 등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반응과 행동 등의 경험을 설계하는 기술</p>
			스마트물류시스템 (F27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물류시스템은 사물, 인간, 기업, 사회를 유기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으로 인공지능, ICT 등 다양한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하여 수송부터 보관, 포장, 배송까지 물류 현장 전 과정의 자동화 및 효율성을 개선한 물류시스템을 의미함 ■ 스마트물류기술, 스마트물류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스마트물류센터 등을 포함함 ■ 스마트물류시스템 적용 기술 사례 <p>[AI(인공지능) & 블록체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및 물류비용 절감, 정보 신뢰도 향상 등을 위해 주문 접수, 공급 계획 및 실행, 풀필먼트 센터 내 보관, 재고관리 피킹 등 물류 프로세스, 라스트마일 배송 등 물류 전 영역에서 현재 광범위하게 AI 기술이 적용되는 추세 (예시) AI와 빅데이터를 접목한 최첨단 물류 터미널 <p>[로봇 & 스마트모빌리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 시스템의 효율 증대, 정확한 자동화 배송체계 구축을 위해 입고-보관-피킹-포장-출고의 각 프로세스에서 무인 지게차, 멀티셔틀 기술, 다관절로봇 등이 도입되고, 배송 과정에서 자율이동로봇(AMR) 적용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예시) 스마트항만 물류 자동화 <p>[디지털 트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시스템을 또 하나의 쌍둥이인 디지털로 표현·관리·제어하는 기술로, 시설 자체의 3D 모델과 연결된 창고 플랫폼에서 수집한 IoT 데이터와 각 품목의 크기·수량·위치·수요특성 등에 관한 재고 및 운영 데이터와 결합시켜 활용하며, 이외 화물 관리 및 추적, 물류시스템 설계 등 전 과정에서 다양하게 적용 가능함 (예시) 디지털 트윈 물류창고 <p>[풀필먼트(Fulfillment)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문 상품이 물류창고를 거쳐 고객에게 배달 완료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주문처리/실행을 위한 IT기반의 정보시스템 및 실행부분에서의 자동화기술 등을 활용하여 물류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새벽배송, 로켓배송 등을 가능하게 함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디지털 뉴딜	정보통신 (F)	실감형콘텐츠 (F28)	확장현실 (F28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장현실(XR : Extended Reality)은 증강현실(AR : Augmented Reality), 가상현실(VR : Virtual Reality), 혼합현실(MR:Mixed Reality) 기술을 모두 아우르는 용어로, 같은 디스플레이 사용 환경에서 가상공간과 현실을 동시에 사용 및 경험할 수 있는 실감형 소프트웨어 기술임 ■ 시장조사기관인 IDC에 따르면, XR 등 VR 시장이 2016년 1,000만대에서 2021년 9,900만대 규모로 약 10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향후 차세대 통신환경은 상호작용을 위해 충분한 현실성을 가진 이상적인 가상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함
			가상훈련시스템 (F28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훈련시스템은 고위험·고비용의 현장훈련 대신, 실제와 유사한 가상 환경에서 안전하게 교육·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상/증강 현실의 대표적인 활용 예로 주목받고 있음 ■ 가상훈련시스템의 세부 기술은 가상/증강 장치 기반의 디스플레이 기술, 사용자의 오감을 자극하는 실감형 인터랙션 기술, 3D 영상 구현 기술을 이용한 콘텐츠 제작 기술로 구분됨 ■ 가상훈련시스템은 국방, 제조,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스포츠, 여가 및 재난 대응 산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실감형콘텐츠 소프트웨어 (F28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감형콘텐츠 소프트웨어란 ICT 기술 기반으로 인간의 감각과 인지를 유발하여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고 감성과 공간을 확장해주는 참여형 차세대 콘텐츠 생산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함 (예시) IoT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개인 체험 서비스, 센싱 기반 Co-presence Virtual Lifeexperience, 홀로-캐릭터(Holo-character) 콘텐츠 기반 Concierge서비스, 멘탈헬스케어 콘텐츠 등
			커넥티드 스마트글라스 (F28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넥티드 스마트글라스는 안경을 통해 보는 모든 객체(사물, 사람, 환경)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예측하여 보여주는 스마트 안경 기술로 고성능 증강현실(AR) 글라스와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의 실시간 렌더링 기술이 적용된 커넥티드(Connected) 초경량 증강현실(AR)/혼합현실(MR)용 스마트 글라스를 통해 도시 정보, 사물 정보, 인프라 정보, 교통 예측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용 가능토록 함 ■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데스크탑 컴퓨터 수준의 고성능 모바일 프로세서(AP), 그래픽 프로세서(GPU), 차세대 고속 이동통신 모듈(xG), 9축 센서, 고화질 투명 디스플레이 기술 등을 안경 수준의 무게와 크기로 통합해야 함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디지털 뉴딜	정보통신 (F)	가용성강화 (F29)	블록체인 (F29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록체인이란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거래를 계정별로 기록, 계산하는 장부)을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P2P(Peer-to-Peer) 네트워크에 분산하고 이를 블록(Block)으로 연결(Chain)하여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말함 ■ 블록체인 기술은 탈중앙화, 높은 보안성, 데이터 무결성, 거래 투명성 등을 장점으로 가짐 ■ 블록체인은 2009년부터 발행된 암호화폐'비트코인'의 핵심기술로 발표되었으며, 비트코인의 단점을 개선하는 새로운 블록체인도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음 ■ 스마트 계약, 사이드체인, DApp 등의 기술이 출현하면서, 블록체인의 특성을 사용자가 자유롭게 조합함으로써 다양한 응용분야에 블록체인이 확산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음
			XaaS (F29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aaS(Everything as a Service)는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SaaS), 서비스로서의 플랫폼(PaaS), 서비스로서의 개발(DaaS), 서비스로서의 인프라(IaaS) 등 서비스 형태로 제공될 수 있는 모든 IT 요소를 의미함 ■ 본래 XaaS의 출발점은 SaaS였으나 서비스 대상이 다양화되어 의미가 더욱 확장되고 있음 ■ 필요한 만큼 쓰고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유틸리티 컴퓨팅이 확산되면서 소프트웨어의 범위를 넘어 플랫폼, 하드웨어,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서비스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음 ■ 최근에는 무선 인터넷 환경과 모바일 디바이스의 성능 진화가 지속되면서 기업과 개인 컴퓨터 환경, 모바일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고 데이터센터 관련 네트워크와 전력 비용이 급상승하면서 서비스로서 네트워크, 전력, 공간 효율의 향상을 가져오는 데이터센터(DaaS)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음
			사이버보안 (F29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보안은 사이버 환경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조직, 사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적 수단, 보안 정책, 개념, 보안 안전장치, 가이드라인, 위기관리방법, 보안 행동, 교육, 훈련, 모범사례, 보안 보증, 보안 기술들의 집합을 말함 ■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과 같은 IT 기술의 발달과 해킹 등의 사이버 공격 기술이 고도화되는 사이버보안 환경의 변화는, 방어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공격을 막기 어려운 사이버 공간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이버 공간을 만드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며 물리적 파괴,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인간 생명의 안전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은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디지털 뉴딜	정보통신 (F)	가용성강화 (F29)	DRM/CAS (F29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은 출판자가 디지털 자료로 배포한 저작권물의 사용을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말함 ■ CAS(Conditional Access System)는 방송국에서 데이터를 특정 코드로 암호화하고 송신하면 셋톱박스에서 저장된 비밀키를 이용해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하여 허가된 시청자에게만 콘텐츠를 제공하는 장치와 소프트웨어를 말함 ■ 기술사업화를 위해선 디지털 콘텐츠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저작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솔루션 개발 기술력을 보유해야 함
			소프트웨어정의 (F29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정의는 네트워크 기능을 하드웨어 기능과 소프트웨어 기능으로 분리해, 프로그래밍 가능성을 높이고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기술로 네트워크를 규정하고 활용한다는 SDN(Software Defined Networking)에서 유래됨 ■ 최근 인프라 관리 및 정책, 보안 등 인프라를 넘어서는 분야, 그리고 비즈니스 및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인 SDx(Software Defined Anything/Everything)로 발전 중이며, 소프트웨어 구성으로 최적화된 IT 인프라를 생성 및 구현하는 기술로 하드웨어 의존도를 최소화한 인프라 또는 데이터센터 최적화에 활용됨
			클라우드 컴퓨팅 (F29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메모리컴퓨팅은 컴퓨터 시스템 내 디스크에서 메모리, 메인 메모리에서 캐시 메모리 등의 데이터 이동을 제거하여 데이터 접근 속도를 향상하는 기술을 말함 ■ 실시간 처리에서 요구되는 지연시간을 극복하는데 활용되며, 처리 대상 데이터를 중앙처리장치가 접근할 수 있도록 메모리에 위치시켜 실시간 처리 응용시스템이 요구하는 성능 요건을 충족 가능함
		지능형데이터분석 (F30)	빅데이터 (F30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으며,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의미함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되는 마이닝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다차원 데이터 분석을 가능하도록 데이터 간 관계나 요약 정보를 제공함 ■ 기술적으로는 대용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간 상관관계나 패턴을 추출하는 절차를 말함 ■ 데이터 마이닝의 응용분야로 신용평점 시스템의 신용평가 모형 개발, 사기 탐지 시스템, 장비 구니 분석, 최적 포트폴리오 구축과 같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디지털 뉴딜	정보통신 (F)	지능형데이터분석 (F30)	데이터시각화 (F30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시각화(Data visualization)는 나열된 데이터를 지식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기술임 ▣ 데이터시각화는 대량의 데이터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관점의 시각적 추론을 가능하게 하며, 정보의 빠른 확산을 유도할 수 있음 ▣ 최근 데이터 시각화 기술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기술 등과 접목되어, 대량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재난안전관리시스템 (F30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이란 자연재해 환경오염, 산업재해 등 재난상황을 감지하고 예방하며, 재난 상황 발생 시 필요한 보안솔루션, 긴급통신 및 유무선 통신보안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함 ▣ 위험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위험을 예측하고, 재난안전 관리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재난 대비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함 ▣ 공공·민간의 실시간 재난안전 관련 예측·감지·대응·수습이 가능하도록 IT기술과의 융합이 본격화되어 각종 센서를 통해 획득한 데이터의 관리 및 분석을 기반으로 예보·경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p style="color: blue; font-size: small;">(예시) 국토 관측센서 기반 광역 및 지역 수재해 감시·평가·예측 시스템, 재난상황 조망시스템(실시간 재난상황 영상 전송 시스템), 도시 지하매설물 모니터링 및 관리시스템 등</p>
			지능형교통시스템 (F30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교통시스템은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첨단기술과 교통정보를 융합하여 교통운영·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효율성·안전성을 극대화하는 미래지향적 신개념 교통체계를 총칭함 <p style="color: blue; font-size: small;">(예시) 실시간 교통정보 시스템 및 교통정보 제공 단말기, 교통관제시스템, 버스정보 시스템, Hi-Pass 등 전자요금 지불 시스템 및 단말기, Smart-Highway 시스템 및 단말기, 교통 연계 및 환승시스템 및 단말기, 차세대 위성항행 시스템 등</p>
			스몰데이터 (F30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몰데이터는 데이터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개별 데이터의 통계적 상관관계를 이용하는 분석방법으로, 전통적인 처리방식으로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지칭하는 '빅데이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작은 데이터를 의미함 ▣ 빅데이터의 한계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높은 처리 비용, 신뢰도 낮은 데이터로 인한 분석 오류, 수집 과정의 비윤리성 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스몰데이터가 주목받고 있으며, 빅데이터와 함께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스몰데이터는 수집되는 방법에 따라 트랜잭셔널(Transaction) 데이터, 온라인 데이터, 소셜 및 모바일 데이터 등으로 나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랜잭셔널 데이터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집되고 저장되는 데이터로, 내부데이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으로 정형화된 데이터임 - 온라인 데이터는 인터넷과 네트워크 접속을 통해 발생한 이벤트의 결과로, 외부 데이터이며 트랜잭셔널 데이터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소셜 및 모바일 데이터는 모바일 모니터링 도구와 소셜 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수집되는 데이터로, 온라인 데이터보다 개인화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디지털 뉴딜	정보통신 (F)	지능형데이터분석 (F30)	지능형 사회간접자본 유지관리 (F30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 사회간접자본 유지관리란 도로, 공항,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빅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인프라를 의미함 ▣ 다양한 센서와 인공지능이 사용되어 인프라의 이상 징후 및 노후정도 등을 예측 및 분석함
			예측 및 처방적 분석 (F30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측 및 처방적 분석이란 데이터를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거나, 특정 접근법을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예상하여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동인 되는 요인들을 제어하는 방법(처방법)을 찾아내는 기술을 말함 ▣ 미래를 예측·분석한다는 점에서 과거나 현재의 상태를 설명하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I:Business Intelligence)와 차별성을 갖으며, 비즈니스 분석(BA:Business Analytics) 라고 불림 ▣ 기술사업화를 위해서는 회귀분석, 기계학습과 같은 고급 분석 기술력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최적화하는 기술력을 보유해야 함
		소프트웨어 (F31)	게임엔진 (F31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엔진은 게임 개발에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을 제공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개발도구로, 게임 개발을 지원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나 라이브러리 등을 포함함 ▣ 게임엔진은 재사용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게임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종류의 게임에 쓰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 기술사업화를 위해서는 ① 2D/3D 그래픽 출력을 위한 렌더링 엔진, ②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세계의 사실적인 게임 환경을 제공하는 물리 엔진, ③ 통신 기능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엔진 등의 기술력을 보유해야 함
	전기·전자 (G)	차세대 반도체 (G32)	시스템반도체 (G3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반도체란 정보처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일종으로, 집적회로 (IC:Integrated Circuit)와 마이크로 컴포넌트(Micro Component) 등으로 구성됨 ▣ 시스템반도체 업체는 사업 형태에 따라 종합 반도체 (IDM: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 팹리스(Fabless), 파운드리(Foundry) 업체 등으로 구분됨 ▣ 시스템반도체는 통신장비, 가전, 컴퓨터, 산업장비 등 대부분의 전자기기와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음
AI칩 (G3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칩이란 인간의 뇌 구조(뉴런)를 모방한 반도체 칩으로, 수천 개 이상의 코어를 이용한 병렬 처리를 통해 신속한 정보 연산(처리)이 가능하고, 전력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기존 CPU는 직렬 처리 기반으로 정보량이 늘어날수록 연산이 늦어지는 병목현상이 발생함 ▣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폰, PC, 서버, 인터넷, SW 기업 다수가 AI 칩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기대됨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디지털 뉴딜	전기·전자 (G)	감성형 인터페이스 (G33)	인간교감 소셜로봇 (G33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교감 소셜로봇은 인간과 생활공간을 공유하면서 언어, 음성, 시각, 생체신호, 촉감 등을 통해 인간과 신체적 또는 감성적인 상호작용을 하여 인간이 처해 있는 사회적 환경과 상황에 적합한 대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로봇을 의미함 ▣ 스마트 기기, IoT 및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지식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탑재됨 ▣ 사회적 맥락에 기반한 인간 교감 소셜로봇은 기술적으로 다양한 센서, 환경정보 및 개인용 빅데이터를 결합하여 사회적 맥락을 인지하고, 인간친화적인 언어와 디스플레이 및 모션을 통해 감성과 지식을 표현해 내는 ICT 기반 인공지능 로봇 기술의 융합체임
		웨어러블 전자기기 (G34002)	웨어러블 전자기기 (G34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웨어러블 전자기기는 신체에 착용, 부착하여 정보를 입력·출력·처리하는 스마트 기기를 의미함 ▣ 초 연결사회에서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편리한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소재, 부품, 제품, 서비스를 인체 중심으로 구현하는 신산업임 <li style="padding-left: 20px;">(예시) 스마트기기의 주요 소자(회로)로 구현하여 편의, 패션, 기능성을 갖춘 디바이스, 신체부착형 스마트 디바이스 등으로 VR기기, 스마트밴드, 스마트 글래스 등이 있음
		웨어러블디바이스 (G34)	무선충전 (G34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선충전은 전자기 유도 현상을 통해 무선으로 전기에너지를 전달하여 대상 기기의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전원을 공급하는 기술임 ▣ 무선충전은 전자기 유도 현상을 통해 무선으로 전기에너지를 전달하여 대상 기기의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전원을 공급하는 기술임 ▣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는 제품은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충전 패드에 거치하여 무선으로 충전하는 형태이며, 충전 대상 기기도 무선 전력 수신을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함 ▣ 무선충전기는 전력 전송 방법에 따라 자기 유도(Inductive), 자기 공명(Magnetic Resonance), 무전 주파수(RF) 방식 등으로 분류되며, 자기 유도 방식은 기술이 완성되어 상용화되었으나 타 방식은 현재 기술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음
		고속충전 (G34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충전은 일정 규격의 전류값보다 큰 전류를 흐르게 하여 짧은 시간에 하는 충전을 말함 ▣ 충전 속도를 높이면서 전지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의 밀도가 낮아지는 단점을 극복하는 것이 미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의 핵심으로, 새로운 배터리의 전극물질 등의 개발을 통해 에너지 밀도 저하 없이 충전 속도를 향상시키려는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임 ▣ 고속충전에 대한 안전성 확보 기술이 핵심 요소임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디지털 뉴딜	전기·전자 (G)	차세대 컴퓨팅 (G36)	차세대 데이터저장 (G36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데이터저장이란 고속으로 읽기, 쓰기가 가능한 저전력의 대용량 데이터저장 기술을 말함 ▣ 빅데이터 시대에 방대하게 생성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장치들임 ▣ 대표적으로, 올 플래시 어레이(AFSA: All Flash Storage Arrays), 홀로그래픽 저장장치(HDS:Holographic Data Storage), 하이브리드 플래시 어레이(HFA:Hybrid Flash Arrays), 열 자기 기록장치(HAMR:Heat Assisted Magnetic Recording) 등이 있음
			슈퍼컴퓨팅 (G36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슈퍼컴퓨팅이란 초고속/거대 용량의 컴퓨팅으로 일반 컴퓨터로 연산하기 어려운 대용량 정보들을 빠르게 처리하고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 (예시) [엑사스케일 컴퓨팅] 1초당 100 경회 계산할 수 있는 엑사플롭스(Exaflops) 급 슈퍼컴퓨터로 인간 두뇌의 연산처리능력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됨 ▣ 슈퍼컴퓨터는 국방, 우주 개척, 재난 예방, 에너지 분야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서 공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바이오, 자동차, 항공, 전자, 신소재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제품 설계 및 개발에 활용됨
	센서·측정 (H)	감각센서 (H37)	3차원이미지센서 (H37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원이미지센서는 사물의 깊이 정보를 포착하여 3D 이미지를 만드는 광학 센서를 말함 ▣ LED조명, 3D머신비전, 카메라, 이미지 처리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어 동작 인식, 자동화 기계, 지능형 로봇 등에 폭넓게 활용 가능함 ▣ 3차원이미지센서는 동시에 여러 이미지를 읽어 들이는 센서를 사용함으로써 3차원 지도를 만들 수 있고 스마트폰 카메라에 적용 시 3D 물체 모형화, 안면 인식 등의 기능 구현이 가능함
			3차원터치기술 (H37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원터치기술은 유리표면에 가해지는 사용자의 압력과 빠른 속도의 조작을 정전용량 센서(Capacitive sensor)가 측정하고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 3D터치는 최근에 두 손가락 이상의 터치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각각 터치되는 힘까지 인식하는 기술도 개발됨
			후각센서 (H37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각센서는 특정 냄새의 성분을 확인하고 화학적 조성을 분석할 수 있는 센서임 ▣ 일련의 전자식 센서들로 이루어진 화학적 감지 메커니즘으로 신경 네트워크와 같은 패턴 인식 메커니즘으로 구성됨 ▣ 입 냄새만을 가지고 암 진단을 내리거나 식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탐색이 가능하고, 인체에 해를 끼치는 물질을 감지하여 식음료, 건강, 개인위생과 보안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 가능함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디지털 뉴딜	센서·측정 (H)	감각센서 (H37)	고해상도 이미지센서 (H37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해상도 이미지센서란 영상을 구성하는 픽셀 개수를 증가하여 사용자에게 고품질의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센서 기술을 말함 ▣ IT기기 소형화 추세에 맞추어 각 픽셀 크기를 줄임으로써 픽셀의 개수를 늘려 고해상도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 ▣ 기술사업화를 위해서는 픽셀의 크기를 줄이는 나노공정 기술과 센서 설계·제작 기술 등이 필요함 ▣ 반도체 공정기술의 발달과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웨어러블기기 및 자율주행차 등의 활용처 확대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햅틱기술 (H37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햅틱(Haptic)기술이란 손에 잡거나 만지는 감각을 의미하는 'haptesthai'에서 유래된 용어로, 사용자가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양방향 인터페이스 기술을 말함 ▣ 사용자에게 가상 혹은 실제 환경의 다양한 정보를 촉감을 통해 제공하는데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을 포함함 ▣ 햅틱기술의 기술사업화를 위해선 장치 설계, 렌더링, 텍스처링 등의 기술력을 보유해야 함 ▣ 원격조작, 의료 및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처가 확대되고 있으며, 혁신성장을 선도할 유망기술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음
			바이오센서 (H37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센서는 유전자, 암세포, 환경호르몬 등 바이오 물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거나 감지할 수 있는 소자를 의미함 ▣ 바이오센서는 생체 감지 물질과 신호변환기로 구성됨 ▣ 생체감지물질로는 효소, 항체, 세포, DNA 등이 있으며, 신호변환 방법으로는 전기화학, 형광, 열센서 등 다양한 물리 화학적 방법이 있음 ▣ 바이오센서는 신속하고 정밀한 측정이 가능해 의료 및 환경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음
			전자피부 (H37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피부는 내외부 자극을 전기신호로 바꿔 전달할 수 있는 인공피부로, 자극 인식을 위한 다양한 센서가 탑재됨 ▣ 탑재되는 센서에 따라 촉각, 온도, 습도, 소리, 혈압, 혈류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생체진단, 헬스케어 시스템, 재난·구조, 방위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할 전망임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디지털 뉴딜	센서·측정 (H)	객체탐지 (H38)	생체인식 (H38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체인식(Biometrics)은 인간의 생체적·행동적 특성정보를 자동화된 장치로 추출하여 본인 여부를 판별하는 기술로,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서명 등의 생체정보가 차세대 인증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음 ▣ 최근 스마트폰 선도기업의 지문·홍채인식 기술 적용으로, 생체인식에 대한 활용 및 관심이 크게 증가되고 있음 ▣ 생체인식은 금융, 의료, 공공부문 등으로 적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센서, 소자, 소프트웨어, 통신, 보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융·복합하며 발전하고 있음
			화생방 핵폭발탐지 (H38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생방 핵폭발(CBRNE: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 and high-yield Explosives) 탐지는 화학적, 생물학적 물질, 방사선, 핵, 폭발물 등을 감지하는 기술을 말함 ▣ 화학작용제 탐지 센서, 광학 센서 등을 이용하여 가스 등 화학물질을 수초 내에 탐지하고 식별하며, 화학물질 제조 사고의 위험감시, 공공장소의 보안과 탐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됨
			관성센서기술 (H38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성센서기술이란 운동의 관성력을 검출하여 측정 대상인 움직이는 물체의 가속도, 속도, 방향, 거리 등 다양한 항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센서 기술을 말함 ▣ 인가되는 가속도에 의해 관성체에 작용하는 관성력을 검출하는 것이 기본원리로 가속도계와 자이로스코프(각속도계)로 분류됨 ▣ 관성센서 응용분야는 비행기 및 차량 항법장치에서부터 바이오 및 의료분야, 통신 및 광학 분야, 자동차 에어백, 핸드폰, 일반 가전 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용됨 ▣ 스마트폰에서는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 등을 통해 현실감 넘치는 증강현실 게임 구현 가능함
			센서융합 (H38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서융합이란 개별 센서를 융합하여 센싱 정확도를 높이고, 단일 센서에서 생성할 수 없는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는 기술 분야를 말함 ▣ 기술사업화를 위해서는 센서 제조, 센서 허브, 센서 신호처리 및 센서 융합 응용 관련 기술력을 확보해야 함 ▣ 혁신성장을 선도할 기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스마트폰, 사물인터넷(IoT) 및 자율주행 분야 등으로 활용처가 넓어지고 있음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디지털 뉴딜	센서·측정 (H)	객체탐지 (H38)	테라헤르츠센싱 (H38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라헤르츠센싱이란 1초에 1조 번(테라) 진동하는 테라헤르츠 전자기파를 활용한 센서 기술을 말함 ▣ 파동 특성상 원적외선(광파, 빛)과 마이크로파(전파) 사이에 위치해 직진하는 빛의 성질과 물질을 잘 투과하는 전파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어, 물질을 잘 투과하면서도 x-ray에 비해 에너지가 낮아 인체에 해가 없으며, 분광 분석법을 이용해 물질 고유의 특성 파악도 가능함 ▣ 의료 분야에서 테라헤르츠파는 암이나 화상 등의 진단에 쓰일 것이며 치아 및 반도체 등에 손상을 주지 않는 비파괴 검사도 가능하고 나아가 옷이나 가방 속에 숨겨진 폭발물과 마약 등을 검출하고 환경 모니터링 및 유해가스의 검출, 식품의 신선도 검사도 가능함
			스마트센서 (H38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센서란 센싱 소자에 MCU 등의 기술을 접목하여 센싱 기능 외에 통신, 데이터 처리, 의사결정 기능을 추가로 갖춘 센서를 말함 ▣ 다양한 방식의 센싱, 측정 데이터 처리를 위한 MCU 제어, 융복합 센서 구현을 위한 운영 체제 등이 핵심 요소 기술임 ▣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 중 하나로, 융·복합 센서 응용을 통해 스마트공장, 자율주행 자동차, 모바일 기기, 의료기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H38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은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및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가 주변 환경을 인식, 판단하고 운전자에게 알려 주는 시스템을 말함 ▣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은 충돌 위험시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밟지 않아도 스스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는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AEB:Autonomous Emergency Braking)', 차선 이탈 시 주행 방향을 조절해 차선을 유지하는 '주행 조향 보조 시스템(LKAS:Lane Keep Assist System)', 사전에 정해 놓은 속도로 달리면서도 앞차와 간격을 알아서 유지하는 '어드밴스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ASCC: Advanced Smart Cruise Control)', 사각지대 충돌 위험을 감지해 안전한 차로 변경을 돕는 '후측방 충돌 회피 지원 시스템(ABSD: Active Blind Spot Detection)', 차량 주변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AVM: Around View Monitor)' 등을 포함함
			동적 비전센서 (H38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적 비전센서(DVS:Dynamic Vision Sensor) 는 일반 센서보다 20배 이상 빠르며, 약 3m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의 손가락 움직임까지 정확히 인식하여 움직이는 물체를 회피하거나 파악해야 하는 자율주행차나 드론 등에 유용하게 활용됨 ▣ 프레임 단위가 아니라, 픽셀 기반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고 객체의 움직임이 있는 경우에만 데이터를 전송하여 데이터와 전력 낭비를 막을 수 있으나 고해상도 카메라 센서보다 높은 마이크로 초 단위의 해상도를 필요로 함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디지털 뉴딜	센서·측정 (H)	객체탐지 (H38)	초소형 인바디센서 (H38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소형 인바디센서는 실시간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무선 전력 및 무선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인체 삽입형 초소형 바이오센서 기술을 말함 ■ 인간의 뇌에 대한 정보 파악, 치매와 우울증과 같은 관련 질병의 모니터링 및 생체신호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에 활용 가능한 기술로서, bio-compatible 물질, 초소형, 유연성, 무선 전력/데이터 전송 등이 주로 중요 이슈가 됨 ■ 임플란터블(삽입가능형) 의료기기는 필요성이 점점 커지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개발도 활발하지만, 무선 전력공급 및 무선 데이터 전송 기술의 한계로 디바이스의 사이즈를 줄이는데 기술적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극복이 필요함 ■ 타투 형태로 제작하거나 미세 전자제어기술(MEMS) 기반의 미세 코일을 만들어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등의 접근은 있지만 기술에 한계가 있으며, 생체성분을 통한 자가발전 등의 획기적인 새로운 기술이 요구됨
			광대역측정 (H39)	라이더(LIDAR) (H39002)
		실시간 위치추적시스템 (H39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간 위치추적시스템(Real Time Location System)은 무선주파수, 광학, 초음파, 지자기, 센서 등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사물의 위치 정보 측위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함 ■ 물류, 헬스케어, 생산 시설 등 사물인터넷(IoT)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근거리 및 실내와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의 위치 확인 및 위치 추적시스템을 통칭하고, 이동통신망 기반의 위치기반 서비스처럼 사람 또는 사물의 위치를 확인하지만 주로 제한된 공간에 활용됨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디지털 뉴딜	지식 서비스 (I)	게임 (I40)	온라인게임 (I40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게임(Online Game)은 인터넷을 통한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도록 고안된 멀티미디어형 게임으로 인터넷을 통해 서버에 접속해서 즐기는 게임을 말함 ▣ 온라인게임의 제작 및 운영을 위한 핵심기술에는 게임 구현 기술, 네트워크 관리 기술, 서비스 관리 기술 등이 포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 구현 기술은 게임 제작에 요구되는 핵심기능 및 제작 도구의 집합체인 게임 엔진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게임 체계의 설계, 게임 그래픽 및 사운드의 제작, 게임 진행과 각종 이벤트 구현, 게임 최적화 등을 수행하는 기술을 의미함 - 네트워크 관리 기술은 다수의 유저가 서버에 접속하면서 발생하는 과부하를 관리하고, 일정한 수준의 네트워크 품질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서버 운영을 도모하는 기술임 - 서비스 관리 기술은 신규 사용자를 게임으로 유도하면서도 기존 사용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로, 과금 체계, 게임 내 밸런스 조정, 참여 이벤트 및 커뮤니티 활동 유도 등이 있으며, 통계 및 사회학적인 통찰을 요구하는 기술임
			가상현실게임 (I40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현실게임은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와 유사한 특정 환경 및 상황을 구현하고,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지원해 사용자가 그 안에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구현하는 기술을 게임에 응용한 것임 ▣ 가상현실게임의 특징은 강력한 몰입과 가상의 지각을 제공하는 것으로, 모니터보다는 HMD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더 정교하고 수준 높은 컴퓨터 그래픽을 제공하므로, 동작 환경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임 ▣ 시각뿐만 아니라 촉각, 후각 등 다채로운 감각을 만들고 제스처나 음성 등 신체 동작을 이용한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직관적인 방식으로 몰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음
		영화/방송/음악/ 애니메이션/캐릭터 (I41)	영화 콘텐츠 (I41001)	▣ 영화 콘텐츠는 모바일 및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플랫폼과 연계된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하고 있으며, 컴퓨터그래픽, 가상현실, 3D입체, 촬영기술 등 최신의 멀티미디어 기술이 활용되는 종합콘텐츠임
			방송 콘텐츠 (I41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콘텐츠는 텔레비전 쇼 제작, 텔레비전 프로덕션 운영 등과 같이 텔레비전 방송용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산업 활동을 말함 ▣ 방송 프로그램은 ①제작 → ②편성 → ③송출 → ④전송 단계를 거쳐서 시청자에게 전달되며,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는 제작에 들어가기에 앞서 방송제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시청률 등)을 검토해야 함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디지털 뉴딜	지식 서비스 (I)	영화/방송/음악/ 애니메이션/캐릭터 (I41)	케이팝(K-pop) (I41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이팝(K-pop)은 대한민국에서 대중적 인기를 얻는 음악을 기록한 음원, 레코드, 테이프 및 CD, 기타 기록물을 기획 및 제작하는 산업 활동을 말함 ■ 기획 및 제작은 ① 제작 → ② 레코딩 → ③ 믹싱 → ④ 마스터링 → ⑤ 프린팅 등의 단계로 구성됨
			애니메이션 콘텐츠 (I41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니메이션 콘텐츠는 그림, 인형, 그림자 또는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스톱 모션으로 찍어 프레임별로 촬영하여 영상했을 때, 피사체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을 말함 ■ 애니메이션은 제작 형식에 따라 그림 애니메이션, 스톱모션 등의 2D 애니메이션과 입체 애니메이션, VR 애니메이션 등의 3D 애니메이션으로 구분됨
			웹툰 (I41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툰(Webtoon)은 'Web(웹)' 'Cartoon(만화)'의 합성어로, 인터넷을 매개로 배포하는 만화를 의미하는데, 특히 한국의 인터넷 연재만화를 웹툰이라 부르며, 영어권의 경우 웹 코믹스(Webcomics)란 용어로 통칭됨 ■ 웹툰의 특징은 ① 창작과 소비과정 전반의 디지털화, ② 고객 성향에 입각한 작품 편성 정책, ③ 콘텐츠 인지도 상승을 기반으로 한 2차 콘텐츠 상품화 등을 들 수 있음
			특수효과 (I41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효과(Visual Effects)는 촬영 등의 실사 제작 분야와 컴퓨터 그래픽(CG) 등의 비실사 제작 분야를 통합하여 특수 영상을 생산하는 디지털 영상 기술을 말함 ■ 원래 영화의 경우 주로 시각효과*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모든 분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CG(Computer Graphic or Computer Generated Image) 산업을 VFX로 일컬음 ■ 기술사업화를 위해선 이미 제작된 촬영 영상에 컴퓨터 그래픽 효과를 첨가하여 현실에서 불가능한 장면을 제작하는 기술력을 보유해야 함
		창작·공연·전시 (I42)	무대기술 (I4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대기술은 공연, 행사 등의 진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관련 기술을 총칭함 ■ 공연 기획사, 국악공연 기획 서비스, 뮤지컬 공연 기획 서비스, 연극 공연 기획 서비스, 콘서트 공연 기획 서비스, 클래식 공연 기획 서비스 등이 해당됨
광고 (I43)	애드테크 (I43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드테크(ADTech)란 광고(AD)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디지털, 모바일, 빅데이터 등 IT 기술을 적용한 광고 기법을 뜻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광고주, 광고매체, 광고 대상을 연결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예시) 온라인(인터넷) 광고, TV광고, 디지털 사이니지,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등 ■ 사용자의 소비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광고를 노출시키는 등 개인형 맞춤 광고 형태로 기술이 진화하고 있음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디지털 뉴딜	지식 서비스 (I)	디자인 (I44)	디지털/콘텐츠 디자인 (I44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콘텐츠 디자인이란,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환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콘텐츠를 사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최적화하여 디자인하고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함 (예시)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실사 또는 컴퓨터 그래픽 등을 이용해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의 시각적 전달 방법을 기획, 디자인, 제작하는 산업 활동 [콘텐츠 디자인] 특정 메시지 내지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기획, 디자인 및 관리하는 시각디자인 서비스 활동 [게임디자인] 게임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있어서, 콘텐츠 기획, 게임 캐릭터 개발, 화면 그래픽, 게임 인트로 영상 제작 등 디자인 산업 활동 [영상디자인] 비디오물 영상의 시각적 전달 방법을 기획, 디자인, 제작하는 산업 활동
			제품/시각정보 디자인 (I44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디자인은 제품의 기능, 사용, 가치 및 외관 등을 최적화하도록 사양을 기획 및 디자인 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함 (예시) 전기/전자 제품 디자인, 생활용품 디자인, 가구 디자인, 운송기기 디자인 ▣ 시각정보 디자인은 특정 메시지, 이미지 또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거나 가상현상 등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 또는 표현하기 위한 시각전달 매체를 기획, 디자인 및 관리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함 (예시) 정보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서비스/경험 디자인 (I44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경험 디자인은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사고와 방법을 기반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발굴하여 사용자 경험 만족을 위한 유·무형의 서비스 모델을 만드는 산업 활동을 의미함 (예시) [서비스 디자인] 사용자 경험 가치 향상 및 새로운 산업 발굴을 위한 디자인 산업 활동 [서비스경험 디자인] 각종 제품에서 필요한 인터페이스 요소를 창작하는 디자인 산업 활동
		고부가서비스 (I45)	에듀테크 (I45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듀테크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을 의미함 ▣ 기존의 동영상 중심의 이러닝(e-Learning) 산업의 수요를 대체 중에 있으며, 스마트폰, 클라우드, 빅데이터,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등의 ICT 신기술과 교육산업이 융합되어 가상 학습, 학습 기반 개인화 지식정보, 스마트러닝, 어댑티브 러닝, 온라인 공개수업(MOOC) 등 초·중·고 및 대학교, 평생교육, 대안교육, 직무교육, 전문교육산업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디지털 뉴딜	지식 서비스 (I)	고부가서비스 (I45)	전자출판 (I45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판(Electronic Publishing)은 도서로 간행되었거나 도서로 간행될 수 있는 저작물의 내용을 디지털 데이터로 전자적 기록매체, 저장장치에 기록하고, 유무선 정보 통신망을 통해 컴퓨터, 휴대단말기 등에서 내용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게 하는 출판 행위를 말함 ■ 전자책이라고도 불리며, CD-DVD롬, 오디오북, 전자사전, 전자교과서, 학술논문, 전자카탈로그 등뿐 아니라 최근 인터넷을 통해 발행되는 웹툰, 웹 소설 등도 전자 출판의 범주임 ■ 원고 집필, DTP, 표지 디자인 등에 있어서는 기존의 종이책 출판과 동일하나, 전자출판은 종이책 인쇄나 제본 등의 작업을 거치지 않으며, 전자책 제작 툴을 이용하여 PDF나 ePub와 같은 형식으로 바꾼 후 DRM을 적용하여 출판하고 있음
			모바일서비스 (I45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서비스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과 같은 개인 휴대기기를 통해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데이터나 영상, 음성 정보 등을 송수신할 수 있도록 기기 자체의 기능을 확장 및 향상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의미함 ■ 모바일 앱 생태계는 모바일 운영체제(Operating System)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제공업체와 앱스토어(App Store)를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 제공업체를 포함한 플랫폼 업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모바일서비스의 핵심 기술은 위치 인식 기술, 대화형 인터페이스 기술, 모바일 인터페이스 및 보안 기술 등이 포함됨
			티커머스 (I45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티커머스(T-Commerce)는 TV와 Commerce가 결합된 단어로, 양방향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데이터방송 기술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TV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상거래 서비스를 의미함 ■ 디지털 방송 기술의 발전으로 시청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해지고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양방향 TV 상거래 서비스인 티커머스가 새롭게 등장함 ■ 기술사업화를 위해선 기존 홈쇼핑이 가지고 있는 매체 신뢰도를 바탕으로, 인터넷 쇼핑이 가지고 있는 사용자 편리성, 상품의 다양성 및 소비자 맞춤형 속성을 결합하는 새로운 상거래 서비스 제공 전략에 대한 개발이 필요함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디지털 뉴딜	지식 서비스 (I)	고부가서비스 (I45)	공유경제 플랫폼 (I45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경제 플랫폼은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디바이스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유희자산 보유자와 해당 자산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수요자 간 거래를 매개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의미함 ▣ 숙박을 공유하는 플랫폼 사업자인 Airbnb나 승차를 공유하는 Uber는 설립 4~5년 만에 기존 호텔업계나 운송업계를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우수한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경제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공유경제 플랫폼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서는 기존과 차별화된 서비스 모델을 기반으로, 사용자 니즈(Needs) 분석 및 수요 예측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 사용자에게 신뢰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거래비용 절감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한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 등 핵심 기술에 대한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주문형 맞춤 보안 (I45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문형 맞춤 보안(Security-on-demand)은 클라우드 기반 보안 기능 가상화를 통해 언제-어디서나-누구든지 지능형 보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하며 영세 중소기업의 소극적 보안투자로 인한 보안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중소기업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 맞춤형 보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보안 서비스 관련 비즈니스 모델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OTT (I45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방송·통신 사업자가 아닌 제3의 사업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동영상(VoD, 실시간방송), 음성통화(VoIP), 메시징 등의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를 뜻함.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전달하는 전통적 서비스와 VoIP, mVoIP, 모바일 메신저 앱 등 OTT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포함함 ▣ 기존 방송에 비해 소비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On-Demand 방식으로 제공하며, 인터넷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료방송 사업자에 비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스마트 디바이스가 개인 Mobile기기에서 TV 등으로 확장 중이며, 더불어 OTT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도 지속 향상되고 있음 ▣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범용화된 웹사이트, 웹 애플리케이션, SNS를 통해 공유하는 플랫폼 인 플랫폼* 형태이며, 구독 개념인 팟캐스트 등 다양한 유통방식으로 동작함 <p>* 단말 운영체제(Platform: 윈도우, IOS, 안드로이드)별 어플리케이션 최적화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p>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디지털 뉴딜	지식 서비스 (I)	핀테크 (I46)	송금·결제 (I46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금·결제는 인증서(보안카드, Active-X 프로그램 등) 등 별도의 결제수단 없이 비밀번호 등을 활용하여 편리하고 수수료가 저렴한 지급결제 및 송금 서비스로 핀테크 분야에서 가장 먼저 발전하기 시작했던 분야임 ■ 스마트폰을 이용해 QR코드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송금 및 결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복잡한 인증절차 없이 간편한 비밀번호나 바이오인식(지문인식, 홍채인식, 얼굴 인식 등)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하는 것이 특징임 ■ PG(Payment Group)나 VAN(Value Added Network)사 등의 중계 사업자 없이 자체기술을 활용한 지급결제가 가능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파격적으로 낮출 수 있으며 거래편의성을 증대함
			금융데이터분석 (I46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데이터분석은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고객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신용평가, 고객자산관리, 상품개발 시스템에 이용되고 있음 ■ 주로 고객정보, SNS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보험사기·신용카드 도용·내부 직원 비리 적발 등 다양한 내역을 분석해서 부정행위 방지, 대출 및 카드 발급 등과 관련된 심사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데 활용됨
			금융소프트웨어 (I46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프트웨어는 블록체인,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 핀테크 영역의 기반이 되는 핵심소프트웨어. 금융보안 및 해킹, 레그 테크, 인슈 테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핀테크 분야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미. 크게 위험관리, 자산관리, 회계관리 등의 분야에 활용됨 - 위험관리는 핀테크 거래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비대면 거래 시 보안/인증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사고를 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며, 사용자 인증을 위한 보안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서버보안까지 포함하는 개념. 최근 주목받는 FIDO(Fast Identity Online) 및 FDS(Fraud Detection System) 등이 대표적인 사례 - 자산관리는 로보어드바이저 등을 활용하여 고객의 자산을 간편하고 편리하게 보여주고 다양한 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향에 맞는 금융상품 추천 및 리밸런싱을 도와주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의미 - 회계관리는 보통 기업의 금전 출납·송금, 자금 사용 시 사용자의 편리성을 증진하고 기존 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예상 및 분석까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디지털 뉴딜	지식 서비스 (I)	핀테크 (I46)	금융플랫폼 (I46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플랫폼은 금융데이터, 핀테크 솔루션 등 온라인 상에서 핀테크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을 통칭함 ▣ 카카오은행 등 인터넷 전문 금융기관, 온라인 자산관리 및 자본조달기관 등이 모두 포함되며 온라인 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금리, 수수료 등의 측면에서 고객의 혜택이 크고 다양한 경쟁업체가 출현하여 대고객 서비스가 큰 폭으로 향상됨 ▣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및 금융결제망 개방 등 혁신적인 핀테크 정책에 힘입어 다양한 B2B 핀테크 플랫폼 사업자의 솔루션 적용이 활성화되고 있음
			혁신금융서비스 (I46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금융서비스는 정보통신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산업에 기여가 예상되는 서비스를 통칭하며, 기존 핀테크 영역을 뛰어넘어 향후 금융 혁신을 유발할 수 있는 일체의 금융 서비스를 포괄함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그린 뉴딜	첨단제조 자동화 (A)	신제조공정 (A01)	3D머신비전 (A01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D머신비전(3D Machine Vision)은 다수의 카메라 혹은 레이저 스캐너 등의 센서를 이용하여 대상물의 3차원 형상 정보를 자동으로 취득, 분석, 활용하는 기술임 ■ 대상물의 영상과 함께 깊이(Depth) 정보를 동시에 취득 및 분석하는 방식으로, 2차원(평면)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사를 수행하는 2D머신비전과 구별됨 ■ 로봇에 의한 제품 수송 및 조립 자동화, 완성품 검사 등에서 주로 복잡한 표면 형상을 갖는 대상물에 활용됨 ■ 제조업, 물류업 등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활발한 산업을 중심으로 공정 자동화에 기반을 둔 생산성 향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3D프린팅 (A01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D 프린팅은 3차원 모델링 된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하여 액체, 고체 형태 등의 소재적층을 통해 3차원 물체를 제조하는 新 제조 프로세스로, 적층 제조(AM), 래속조형(RP)으로 정의함 ■ 프린팅 방식에 따라 광중합(PP), 재료 분사(MJ), 재료 압출(ME), 분말 적층 용융(PBF), 접착제 분사(BJ), 고 에너지 직접 조사(DED) 및 박판 적층(Sheet Lamination)으로 구분하며, 프린팅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소재 종류와 형태 및 S/W 등이 결정되는 것이 특징임 ■ 국내 업체의 80%가 재료 압출 방식(ME)의 장비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복잡 형상 제조 및 적용 가능한 소재 다양성 측면에서 분말 적층 용융 방식(PBF)이 주목받고 있으며, 금속, 세라믹 등 첨단 소재의 적용 및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A01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은 공장자동화를 목표로 하는 스마트팩토리 구현을 위해 IoT, AI, 빅데이터, CPS*(Cyber Physical System) 등의 첨단 기술을 적용한 플랫폼 기술을 총칭함 * CPS :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가지는 물리적 요소와 이를 제어하는 컴퓨팅 요소가 결합된 네트워크 기반 복합 시스템 ■ 센서, 정밀제어, 네트워크, 데이터 수집·분석 등 다양한 요소 기술이 융합되어 솔루션을 구성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각종 S/W와 H/W를 포함함 ■ 에너지 절감, 제조비용 절감 및 생산시간 단축 등의 ① 생산성 향상 기술을 비롯하여 제품 생애 주기별 관점에서의 '시장조사 → 생산 → 판매 → 서비스 제공' 등 전 과정 네트워크화를 통한 ② 고객 맞춤형 제품생산기술 등의 기술력이 요구됨 ■ 과거 자동화는 사전에 정의된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기기가 일괄적으로 움직이며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었으나, 스마트 공장의 자동화는 생산설비가 제품과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작업을 대처하는 것을 의미함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그린 뉴딜	첨단제조 자동화 (A)	신제조공정 (A01)	지능형기계 (A01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기계는 신기술과 타산업과의 융합으로 창출된 스마트 기계 부품 및 장치를 총칭하며, 기계산업에 IT, NT, ET 기술 등이 융합되어 안정성과 편의성이 향상된 특수 목적형 첨단 기계를 말함 ■ 산업용 섬유기계, 경량 소재 정밀가공기계, 지능형 수송기계, 고성능 농업용 기계 등을 비롯하여 IT 융합 가공장비, 생산 시스템, 친환경 고효율 냉동·공조기계, 정밀 동력 기계 등의 기계장비 분야와 이를 이용한 공정 및 시스템 기술 분야가 포함됨 ■ 기술사업화를 위해선 지능화, 친환경화, 고효율화, 융복합화 및 초정밀·미세화 등을 기반으로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며, 고정밀도·고신뢰성을 갖는 공정 및 장비 제조 기술 등을 보유해야 함
			4D프린팅 (A01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D프린팅은 인간의 개입 없이 열, 진동, 중력, 공기 등 환경이나 에너지원의 자극에 의해 시간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고 자가 변형이 가능한 스마트 소재를 3D프린터로 출력하는 기술을 말함 ■ 3D프린팅 기술에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형되는 4차원 개념이 적용되어 4D프린팅 기술이라고 함 ■ 생산된 물질이 스스로 변형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자기변형 물질(self-transformable materials)라고도 하며, 조건에 따라 반응한다고 하여 프로그램 가능물질(programmable materials)라고도 함 ■ 3D프린팅 시장 중 역학적으로 형태 변형이 필요한 분야로써 의류, 헬스케어, 자동차, 항공 등 주요 산업분야에서 응용제품으로 활용될 전망임
			지능형 4D스캐닝 (A01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 4D스캐닝은 3D프린팅 기술에 시간요소를 더해, 대상물에 대한 3D이미지의 실시간 처리를 통한 움직임까지를 구현하는 기술로 3D스캐너가 움직이지 않는 정적 대상만의 3차원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면, 4D스캐닝 기술은 움직이는 대상물에 대한 3차원 형태의 복원이 가능함 ■ 5G 상용화에 따라 동시점에 충분한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기술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콘텐츠인 AR/VR에서 움직이는 대상물에 대한 3차원 입체 비디오를 복원하는 등의 적용이 예상됨 ■ 적용 예상 분야/산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부문에 있어 정적 이미지 판독의 범위를 넘어 동적 이미지 판독이 가능 2) 원격 진료 및 수술, 그리고 원격 간호 등 텔레메디신(Telemedicine)의 현실화 3) 정밀 산업內 다양한 시제품 구현 4) 콘텐츠 산업의 보다 다양한 소재 구현(스포츠, 게임, 영화, UCC 등)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그린 뉴딜	첨단제조 ·자동화 (A)	로봇 (A02)	미래형 제조로봇 (A0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형 제조로봇은 기존 산업용 로봇(Industrial Robot)에 적용되던 안전펜스의 설치 없이 작업자와 동일한 공간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용 로봇을 지칭하며, 쉬운 작업 교시 기능을 갖추어 복잡한 프로그래밍이 없이도 직접 혹은 그래픽 기반의 입력을 통해 로봇에게 작업을 지시할 수 있음 ▣ 고속 대량 생산을 목표로 정밀성과 신속한 고하중 작업 완수를 위해 도입된 대기업 중심의 전통 산업용 로봇은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를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 산업 환경에 적합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형 제조로봇이 개발됨 ▣ 미래형 제조로봇은 완전 자동화가 아닌 수작업과 완전 자동화의 중간 형태로서 생산 현장 근로자의 피로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서 인식되며,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하도록 조립 및 부분 핸들링에 다양한 기능을 부과하여 생산 효율성을 높이도록 진화 중임
			스웜로보틱스 (A0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웜로보틱스(군집 로봇, Swarm Robot)는 대규모 로봇 집단이 개미, 벌과 같이 각각의 상호 작용을 통해 전체의 목적을 달성하는 복수 로봇의 한 분야로, 기능이 단순한 복수의 로봇을 이용해 협업으로 복잡한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로봇 시스템을 말함 (예시) 물류 회사에 적용한 사례에 따르면, 기존 컨베이어식 창고관리 시스템에서는 물품이 직렬로 배치되어 있어 주문된 물건이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으나, 스웜로보틱스 도입으로 수십 대의 로봇들이 서로 충돌 없이 여러 물품의 주문을 병렬로 처리하여 효율성을 높임
		차세대동력장치 (A04)	첨단철도 (A04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철도란 철도고속화, 안정화 및 친환경화를 위해 첨단 기술이 집약된 철도 시스템 연구 분야를 말함 ▣ 산업의 고도성장으로 인하여 새로운 대중교통 시스템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선 첨단철도의 고속화, 안정화 및 친환경화 기술 등이 필요함 ▣ 첨단철도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술 중 하나로, Transrapid International(독일), Mitsubishi(일본), General Electric(미국), Thales(프랑스) 등의 글로벌 기업과 현대로템,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및 한국기계연구원 등 국내 산학기관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음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그린 뉴딜	첨단제조 ·자동화 (A)	차세대동력장치 (A04)	전기차/하이브리드 (A04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하이브리드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외에 배터리를 통해 전기에너지를 전기모터로 공급하여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친환경 차량을 말함 ▣ 하이브리드 자동차(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PHEV), 전기자동차(EV) 등이 해당됨 ▣ 핵심기술로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회생제동 시스템, 가상 엔진 사운드 시스템, 배터리, 전기모터, 인버터 등이 적용되고 있음 ▣ 향후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친환경성·연비 효율성을 요구하는 산업 트렌드에 맞춰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스털링엔진 (A04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텔링엔진(Stirling Engine)은 밀폐용기에 충전된 헬륨이나 수소 등의 작동가스를 저온부와 고온부에 충전한 후, 서로 다른 온도에서 압축·팽창시킬 때 발생한 동력으로 기계적인 회전력을 얻어 유도전기를 생산하는 외연기관이며, 초소형열병합 발전시스템, 태양열, 바이오, 폐열발전 및 군용 잠수함 등에 사용되고 있음 ▣ 1816년 영국의 Robert Stirling이 작동가스로 공기를 사용한 새로운 방식의 열공기기관(Hot Air Engine)을 고안했으며, 내연기관 대비 크기가 크고 속도조절이 어려워 실용화에 실패했으나,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내열재료, 밀봉 및 열교환 기술이 개선되면서 고효율 스텔링엔진의 상품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음 ▣ 스텔링엔진은 밀폐된 구조로 인해 배기열 손실이 없고 재생기를 통해 열회수가 가능하여 이론적으로 가장 높은 열효율을 달성할 수 있으며, 연료의 제한이 없고 왕복동식의 내연기관에 비해 소음과 진동이 작음
			스마트카 (A04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카(Smart Car)는 자동차에 전기, 전자, 정보통신, 자동제어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차체와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운전자에게 안전 및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자동차를 통칭함 ▣ 스마트카는 전문가 및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음. 좁은 의미에서의 스마트카는 컴퓨터, 통신, 제어 계측 기술 등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운행할 수 있는 자율 주행 자동차에 국한되며, 넓게는 전기차 등 친환경 동력을 사용하는 그린카까지 포함하기도 함 ▣ 스마트카는 기계, 컴퓨터, 전기전자, 정보통신, 제어계측 등 광범위한 분야의 첨단기술들이 집적되어, 안전 및 편의성 향상, 정보의 활용 및 제공, 멀티미디어 기능 등을 극대화함 ▣ 기존 자동차에 컴퓨터,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 글로벌 IT대기업들의 참여가 두드러지며, 반도체, 전자 기업들의 스마트카 시장 진출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그린 뉴딜	첨단제조 ·자동화 (A)	차세대동력장치 (A04)	전기차/하이브리드 인프라/서비스 (A04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하이브리드 인프라/서비스는 전기차/하이브리드를 충전할 수 있는 급속 충전기, 이동형 충전기, 충전소, 배터리 리스, 폐배터리 활용 등 향후 도래할 미래형 자동차와 연관되는 인프라와 서비스를 총칭함 ■ 전기차 충전기는 전기차 배터리 충전을 위해 주택, 사무실, 공공기관 등 외부 공간에 설치하는 충전 시스템을 의미하며, 전력 공급 방식에 따라 직접 충전, 비접촉 충전, 전지 교환 방식으로 구분됨 ■ 대용량 배터리 급속 충전과 차량 경량화를 위해 전기차 내장형 충전기(On-board Charger) 없이 직류(DC)로 직접 배터리를 충전하는 외부 설치형 충전기 연구가 배터리 표준화와 함께 진행 중임
			고효율/친환경 선박 (A04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효율/친환경 선박이란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해운시장의 연비 향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 고효율화, 온실가스 저감 및 신규 추진 동력 기술 등을 활용한 선박을 말함 ■ 기술 사업화를 위해선 천연가스 보조 연료 엔진, 연료전지, 전기추진 및 핵추진 등 현재의 디젤 기관을 대체하는 연료나 추진 방식의 기술력을 보유해야 함 ■ 해운업계에서는 선체저항을 감소시키고 디젤엔진의 효율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비 향상에 집중하고 있으며, 조선업계에서는 프로펠러의 손실 저감 및 가스 추진기관 개발 등에 주력하고 있음
			스마트모빌리티 (A04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모빌리티(Smart Mobility)란 기존의 교통 체계와 스마트 기기의 첨단 기능이 융합된 미래형 교통수단을 의미함 ■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혹은 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 Mobility)라고도 하며, 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여 1~2인승 개념의 소형 이동 수단을 의미함 (예시) 전기자전거, 이륜 전동 스쿠터, 전동 킥보드 ■ 기술사업화를 위해선 저탄소 에너지, 배터리 등 에너지 저장 시스템(수명 및 용량 등 개선), 첨단소재(경량 소재), 센서, 동력 발생 장치, 안전장치 및 충전 기술 등의 요소 기술과 관련 인프라 기술력을 보유해야 함
			수소전기자동차 (A04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전기자동차는 수소를 연료로 하여 수소 연료전지를 통해 전기를 얻어 구동하는 친환경 차량임.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에너지를 만든 후 대기오염물질이 아닌 물이 배출되며 주행 중에 주변 공기를 흡입하여 정화한 후 다시 배출하기 때문에 공기 정화 기능도 가지고 있음 ■ 수소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은 연료전지 시스템, 수소 저장 장치, 전장장치로 구성됨. ■ 수소전기자동차는 전기자동차 등과 함께 차세대 교통수단 후보로 경쟁하고 있으며,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연료비가 싸고 출력이 높으며 전기자동차에 비해 충전 시간, 주행 거리 등에서 장점이 있음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그린 뉴딜	첨단제조·자동화 (A)	차세대동력장치 (A04)	수소전기자동차 인프라/서비스 (A04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전기자동차 인프라/서비스는 수소충전소 등 수소전기자동차와 연관되는 인프라와 서비스를 총칭함 ▣ 수소충전소는 수소전기차에 350~700기압의 고압으로 수소 연료가스를 공급하는 소규모 플랜트 설비로, 수소 제조·공급·압축 및 저장 장치와 가스 주입을 위한 디스펜서 등으로 구성되며, 수소전기차의 보급을 위한 핵심 인프라임 ▣ 수소충전소는 전력 설비인 전기차 충전소에 비해 설치비용이 크며, 수소 제조설비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현지 공급 방식(On-site)과 중앙공급 방식(Off-site)으로 구분됨 (예시) [중앙공급식(Off-site)] 대규모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수소를 수소충전소까지 연결된 파이프 라인을 통해 직접 공급하거나 튜브 트레일러로 개별 수송하여 수소충전소의 저장용기에 재주입하는 방법으로, 수소충전소에서는 수소를 생산하지 않음 [현장공급식(On-site)] 수소충전소 내에 수소 생산 설비 및 저장용기를 설치하여 수소 전기차에 수소를 직접 생산·공급하며, 화석연료를 수소로 개질하거나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공급함
	화학·신소재 (B)	바이오소재 (B07)	생물유래소재 (B07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유래소재는 전체 혹은 부분에 생물 유래 자원을 사용한 것으로, 최종 제품의 생분해성을 높이는 환경친화적인 재료임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생물유래소재는 셀룰로오스, 생물 유기체, 전분 및 그 유도체 등이 있음
	에너지 (C)	신재생에너지 (C10)	태양전지 (C10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전지는 태양의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핵심 부품임 ▣ 태양전지는 우리가 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화학전지와는 다른 구조를 가진 것으로 '물리전지'라 구분하며,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라고 하는 2종류의 반도체를 사용해 전기를 발생시킴 ▣ 현재 제1세대의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전지가 주력이고 제2세대 박막 태양광 전지, 제3세대 최첨단 유기, 염료감응형 태양광 전지 등으로 구분되며, 3세대 태양전지는 전기 변환이 한계 효율(31~41%)을 넘어서는 태양전지 기술임
			태양광발전 (건물일체형 포함) (C10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발전(건물일체형 포함)은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광변환시키는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직류 전기를 생산한 후, 교류 전기로 변환하여 계통 선로를 통해 송전하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임 ▣ 태양광발전은 운용 방식에 따라 독립형과 계통연계형으로 구분하며, 독립형은 송배전 인프라가 없는 오지의 소형 부하에 사용되고, 계통연계형은 발전소 내에서 소비한 전력 이외의 잉여 전력을 수용가에 송전하여 판매하는 방식임 ▣ 태양광발전 단지가 수십 MW 규모로 대형화되고, 주 전력 계통으로 편입됨에 따라, 고효율 전력변환 및 송전 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그린 뉴딜	에너지 (C)	신재생에너지 (C10)	바이오매스에너지 (해양,농산,산림 포함) (C10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매스에너지(해양, 농산, 산림 포함)란 식물이나 미생물 등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기술을 의미함 (예시) 목재 등의 건조 바이오매스에서는 가스화 혹은 열분해에 의하여 가연 가스를 채취하거나 폐기액, 오물, 해조류 등에서는 혐기성 발효에 의하여 메탄가스를 얻어내고 있으며, 고구마 등에서는 알코올을 만들어냄 ▣ 바이오매스 발전(Biomass Power Generation)은 바이오매스를 직접 연소하거나 석탄과 혼소하여 얻은 열에너지로 고온·고압의 증기를 생성한 후, 증기터빈 발전기로부터 전력을 생산하는 동시에 폐열을 이용하여 지역난방에 온수를 공급하는 열병합 기술임 ▣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분야 응용은 전통적인 조리 및 난방에서부터 바이오 연료 생산공정 또는 열병합 발전에 이르는 다양한 첨단 기술을 포함하며, 높은 효율을 나타내는 바이오매스 직접 연소, 석탄과의 혼소 또는 바이오매스 가스화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에 이용되고 있음 ▣ 발전설비의 대형화, 이종 연료의 혼소, 고효율 발전성능, 친환경성 제고, 바이오매스활용 확대 등을 위해 바이오매스 연소, 바이오매스 가스화, 혐기소화 분야에서 다양한 공정 기술이 개발되고 있음
			지열발전 (C10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열발전은 지하의 고온층에서 증기나 열수의 형태로 열을 받아들여 발전하는 방식을 말함 ▣ 지열은 지표면의 얇은 곳에서부터 수 km 깊이의 고온의 물(온천)이나 암석(마그마) 등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일반적으로 자연상태에서 지열의 온도는 지하 100m 깊어질수록 평균 3°C~4°C가 높아져 지대와 발전 방식에 따라 수백 m에서 수 km 깊이의 우물을 파기도 함 ▣ 우물로부터 얻은 고온의 증기를 증기터빈에 유도하고, 고속으로 터빈을 회전시켜서 이와 연결된 발전기에 의해 전력을 생산함
			해양에너지 (발전기술 및 해양자원개발) (C10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에너지는 해양의 조력, 조류, 파력 및 해수온도차에너지를 전기·열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 및 설치 구조물을 제조하는 기술을 말함 (예시) [조력발전] 수차, 발전기, 브레이크 시스템, 전력 변환 장치, 변압기, 수문, 방조제, 통선 갑문 [조류발전] 수차, 발전기, 브레이크 시스템, 전력 변환 장치, 변압기, 지지 구조물 [파력발전] 파력 변환 운동부 유체, 유압장치, 터빈, 전력 제어기, 발전기, 변압기 [해수온도차] 해수 취·배수관, 냉·난방 장치, 열교환기, 온도차발전장치, 전력변환 장치, 변압기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그린 뉴딜	에너지 (C)	신재생에너지 (C10)	(도심형)풍력발전 (C10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력발전은 바람이 가진 운동에너지를 풍력터빈의 기계적 회전동력으로 전환한 후, 유도 전기를 생산하여 수송기에 송전하는 무 고갈성의 재생에너지 기술임 ■ 풍력터빈의 출력은 블레이드가 회전하는 면적(Swept Area) 및 풍속에 비례하고, 평균 풍속이 6~7m/sec 이상인 지역에서 경제성이 있는 전력생산이 가능함 ■ 풍력발전의 핵심기술은 입지분석 및 계통연계등으로 구분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력발전은 사업 예정지의 입지적인 특성이 경제성을 좌우하므로, 발전단지 건설을 위해서는 풍량, 지형 및 기후 등의 입지조사를 수행하여 연간 발전량(Annual Energy Production)을 객관적으로 추정해야 함 - 풍력발전 계통연계는 유효전력 및 주파수 제어, 무효전력 제어 및 역률 제어, 전압 및 주파수 변동 제한 등의 요소기술로 구성됨 ■ 도심형풍력발전은 도시 그린화와 제로에너지 빌딩 구축의 일환으로 도심 공간에 적합한 풍력발전 시스템을 의미하며, 대부분이 소형 발전 시스템으로 수직축과 수평축이 구분되지 않고 사용 용도에 적합한 형태로 적용됨 ■ 국내의 경우, 도심지의 풍속이 2~4m/s로 높지 않아 풍력발전에 효율적이지 못하지만 수직형 풍력터빈은 비교적 저속에서도 발전이 가능하며, 최근 15층 이상의 고층 공동주택과 빌딩이 늘어나고 있어 이들 건물에 대한 소형풍력발전에 수요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p>(예시) [도심지의 독립형 풍력발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등용 풍력발전 등 건물 가까이 풍력 조건이 비교적 양호한 지상 및 공간 등에 설치하는 방법 [기존 빌딩의 풍력발전] 건물의 외형을 변경하거나 건물의 구조 보강 없이 기존 빌딩에 설치하는 방법 [건물 일체형 풍력발전] 풍력발전을 초고층 빌딩의 한 부분으로 흡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BUWT(Building Integrated/Mounted WindTurbine)라고 하며, 이 범주 내에서 특히 건물의 외형을 풍력을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방식을 BAWT(Building Augmented Wind Turbine)라고 하며 이 방식은 건물의 조명 설계 등의 많은 변화를 요구하며 새로운 도심형 풍력발전으로 정착해갈 것으로 전망됨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C10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NRE-H)이란 에너지 효율 향상, 발전단가 저감 및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둘 이상의 기술을 융합한 시스템을 의미함 ■ 재생에너지를 전력 그리드, 건물, 산업, 수송 분야에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통합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신재생에너지와 다른 기술 간 다양한 융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기업들은 에너지 저장장치, 수요관리시스템을 他기술과 융합하여 기존의 단일 원별 시장에서 토탈 솔루션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그린 뉴딜	에너지 (C)	신재생에너지 (C10)	<p>대형풍력발전시스템 (C100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풍력발전시스템은 바람 에너지를 대형 풍력터빈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풍력발전단가를 낮추기 위해 매년 풍력발전의 대형화가 진행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상용 풍력 발전기는 2~3MW급을 중심으로 낮은 발전원가를 갖는 대형 풍력발전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으며, 해상용 풍력 발전기는 5~10MW급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 진행 중임 ▣ 풍력은 경제성 및 기술적 성숙도가 가장 뛰어난 재생에너지원으로서 풍력발전이 대형화됨에 따라 발전단가 면에서도 기존의 천연가스나 석탄 등 화석연료와 경쟁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였음
			<p>수열발전 (C100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열발전은 하천수, 하수, 해수 등의 물과 대기 온도와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히트펌프로 냉방시 건물의 열을 물을 통해 방출하고 난방시 물에서 열을 얻어 건물 안으로 공급하는 원리로 운영되며, 주로 건물 냉난방, 농가, 급탕열원, 지역냉난방 공장, 온실, 수산양식장, 제설작업 등의 열원으로 이용이 가능한 발전방식임 <p>(예시) 온배수열을 시설원에 또는 양식장 등의 난방열원으로 공급하여 생물성장을 촉진하고 화훼, 열대과일 등 고부가 작물 생산</p> <p><i>* 발전소의 발전기를 냉각하는 동안 데워진 물(해수)이 온도가 상승된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열에너지</i></p> ▣ 수열에너지는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에너지원으로 온도의 계절간, 일간 변동이 적고 어는점이 일반 물보다 낮은 -1.9°C이기 때문에 저온까지 열 이용이 가능하며, 여름에는 대기보다 약 7°C가 낮고 겨울엔 10°C 정도 높아 열펌프의 열원으로 매우 우수함 ▣ 부존량이 거의 무한해 대규모 열수요에 이용이 가능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수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p>수소에너지 (생산·운송·저장시설 포함) (C100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에너지기술은 물, 유기물, 화석연료 등의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는 수소를 분리, 생산하여 이용하는 기술로서, 물의 전기분해로 가장 쉽게 제조할 수 있으나, 입력에너지(전기에너지)에 비해 수소에너지의 경제성이 너무 낮으므로 대체전원 또는 촉매 등을 이용한 제조기술 연구가 진행 중임 ▣ 수소 운송·저장 장치는 높은 에너지 밀도 및 고효율을 갖는 수소를 운송·저장할 수 있는 설비 및 시스템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에너지 저장기술로는 특수 수소저장합금을 비롯하여 크게 고압가스 저장, 액체저장, 고체저장, 화학저장 등이 있으며, 수소엔진 전력저장 시스템(H-ESS) 기술은 기존의 디젤발전기 및 배터리 기반의 ESS 기술을 대체 보완할 차세대 대용량 에너지 저장기술로 중요성 및 파급효과 클 것으로 예상됨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그린 뉴딜	에너지 (C)	신재생에너지 (C10)	수소에너지 (생산·운송·저장시설 포함) (C10012) (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에너지는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여 연소하는 경우 물이 되기 때문에 배기가스 등 공해 물질이 거의 생성되지 않고, 직접 연소하거나 연료전지의 연료로 활용하게 되면 전기에너지로 쉽게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석유와 달리 연소를 통해 에너지를 얻는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소음이 적은 장점이 있음 * 수소에너지 응용기술 예시 (가정) 전기, 열 (산업) 반도체, 전자, 철강, 금속, 기초화학물질, 유리, 석영, 식품, 고부가가치 의약품 (수송용) 자동차, 버스, 트럭, 배, 제트기
		친환경발전 (C11)	연료전지 (C11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전지란 연료 중의 수소와 공기 중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기와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고효율, 친환경 미래 발전시스템 ▣ 연료전지의 기본 원리는 전기를 이용해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것을 역이용하여 수소와 산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것 ▣ 발전 장치의 규모가 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규모로 여러 곳에 설치해서 송전비용도 절감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용 원료가 고갈될 염려도 없고, 전기를 생산한 후 발생하는 물질이 물뿐이므로 공해도 전혀 일으키지 않음 ▣ 연료전지는 초기 자동차나 인공위성 등 이동용 장치의 독립 전원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대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형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음
			초임계CO ₂ 발전시스템 (C11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임계CO₂발전시스템은 임계압력 이상 초고압으로 압축된 이산화탄소를 고온으로 가열하여 터빈을 구동하는 브레이튼(Brayton) 사이클 방식의 전력 생산 기술을 말함 ▣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다수의 열원(원자력, 석탄화력, 태양열, 지열 등)에 적용할 수 있으며, 발전 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핵심기기들의 부피가 감소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스케일이 현저하게 작아지는 장점을 보유함 ▣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는 액체의 작은 압축 일과 기체의 작은 유동저항이라는 장점을 모두 가지므로, 물을 작동유체로 하는 스팀터빈 발전 사이클에 비해 장치를 소형화하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음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그린 뉴딜	에너지 (C)	친환경발전 (C11)	에너지하베스팅 (C11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하베스팅은 버려지는 에너지를 수집해 전기로 바꿔 쓰는 기술 ▣ 집이나 사무실 조명의 빛에너지, 발바닥이 바닥을 누르는 압력에너지, 자동차나 기차, 비행기 등이 움직일 때의 극심한 진동과 열에너지, 휴대전화 기지국이나 방송국에서 전자파 등이 방출되는 에너지를 수집해 전기로 바꿔 쓰는 것 ▣ 이러한 기술은 센서들의 배터리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웨어러블 기기, 헬스케어 기기, 사물인터넷 등 소형 저전력 전자기기 분야에서 전망이 밝음
			가스터빈 발전플랜트 (C11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터빈은 고온·고압의 가스를 팽창시켜 회전식 동력을 발생하여 압축기를 회전시키고 잉여 동력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기계장치로 보통 회전체의 원주에 여러 개의 깃(Blade) 또는 날개를 심고 거기에 가스를 내뿜어 고속회전시키는 원리임 ▣ 가스터빈은 연소가스의 흐름으로부터 에너지를 추출하는 회전동력 기관으로 압축기와 터빈 그리고 연소기로 구성되어 있음 ▣ 압축기에서 압축된 공기가 연료와 혼합되어 연소됨으로써 고온·고압의 기체가 팽창하고 이 힘을 이용하여 터빈을 구동하게 되는데, 이때 에너지는 샤프트를 통해 토크(Torque)로 전달되거나 추력(반작용으로 발생한 힘)이나 압축 공기형태로 얻음 ▣ 가스터빈은 발생한 에너지로 발전소의 전력 생산을 위한 발전기, 항공기, 기차, 선박, 전차(戰車) 등을 구동하는 추진체로 널리 이용되고 있음
		에너지저장 (C12)	정압식압축공기저장 (C1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압식압축공기저장은 잉여 전력을 이용해 공기를 지하 암반의 저장시설에 압축한 후, 이 공기를 좁은 관으로 배출해 발전기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저장 시스템을 말함 ▣ 가스 터빈에 필요한 압축공기를 심야 또는 비첨두 시간대(Off Peak Period)에 미리 압축해서 저장하였다가 주간에 활용하는 것으로, 전력 저장과 발전을 위한 하이브리드 기술임 ▣ 동 시스템을 통해 저장된 압축공기는 필요시 LNG 등의 연료를 사용해서 가열 후 팽창시켜 터빈을 구동하여 전력을 생산하는데 이용함 ▣ 발전 시에 별도의 압축기 구동이 불필요하여, 동일한 연료량으로 일반적인 가스터빈 발전보다 더 많은 발전량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임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그린 뉴딜	에너지 (C)	에너지저장 (C12)	에너지저장장치(ESS) (C1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는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을 말함 ▣ 광의의 개념으로는 전력 저장, 열저장 및 물리적/화학적 저장 기술을 통칭하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나 일반적으로는 협의의 개념인 전력 저장/ 공급 시스템을 지칭 ▣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시켜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 가능토록 하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여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같이 출력 변동성이 심한 태양광, 풍력으로 발생된 전원 출력을 고품질로 전환하여 전력망에 연계하기 때문에 전력망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ESS는 신재생에너지 및 이와 연계된 스마트그리드의 구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함
			에너지저장클라우드 (C1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저장클라우드는 정보통신 기술(ICT)을 접목하여 지역 단위에 산재된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중앙에서 통제하는 기술로, 각기 다른 전력설비를 상호 운용하여 에너지 저장 및 소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임 ▣ 주요 설비에 설치한 감지기가 전력 사용량 데이터를 수집 후,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중앙의 통합 관리 센터에서 에너지 사용 패턴 분석을 통해 전체 사용자의 에너지 소비·저장·판매를 최적화함 ▣ 클라우드 웹서버, 무선통신 등을 이용해 에너지 사용량을 계측하고, 변동 요인을 실시간으로 보정하여 전력 소비자를 위해 시각화하는 컴퓨터 및 정보통신 분야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술이 필요함 ▣ 또한, 에너지저장장치에 학습 및 지능 기능을 내장하여 충·방전 의사결정을 자동화하고, 에너지 수요 특성에 따른 가전기기의 제어나 전력의 소비를 원격으로 통제하는 기술도 요구됨
			에너지가스변환 (C1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가스변환이란 전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생산된 전력을 가스 형태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기술을 말함 ▣ 발전출력이 높을 때 발생한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수소나 메탄으로 바꿔 가스터빈의 발전연료, 연료전지 자동차의 수송연료 등으로 사용됨 ▣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하여 출력 변동성이 높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보완,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도 제고, 전력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음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그린 뉴딜	에너지 (C)	에너지저장 (C12)	리튬이온배터리 (C1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튬이온배터리는 음극에는 활성탄, 양극에는 리튬 이온 흡장 가능한 탄소계 재료를 사용한 축전기 기술을 말함 ▣ 다른 축전기에 비해 높은 출력전압을 가지며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2차 전지로 기전력은 3.6V임 ▣ 가볍고, 무게 대비 에너지 밀도가 크고, 자가방전에 의한 전력손실이 적으며, 기억효과(Memory Effect)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음 ▣ 다만, 폭발 위험이 있고 수명이 짧으며, 기본 화학 특성으로 인해 양극재와 음극재 간 탄소 원자에 맞는 리튬이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음 ▣ 리튬설퍼 배터리, 리튬에어 배터리 등이 차세대 리튬 배터리로 개발 중에 있음
			양성자전지 (C1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자전지(혹은 양성자 교환막 연료전지)는 양이온을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연료전지 투과 막을 이용한 기술로, 고분자 전해질형 연료전지라고도 불림 ▣ 저온에서 작동되는 연료전지로, 부피·무게가 적으며 단위 면적 당 높은 출력 밀도로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이거나 원가절감, 내구성 확보를 위한 개발이 요구됨 ▣ 응용분야와 출력 범위가 다양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로, 휴대용·가정용·수송용 등에 적용됨
			슈퍼커패시터 (C1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슈퍼커패시터(혹은 울트라커패시터)는 다른 커패시터보다 월등히 높은 정전용량값(전압 한계는 오히려 낮음)을 갖는 고용량 전기 저장 장치를 말함 ▣ 슈퍼커패시터는 활성탄 표면에서의 물리적 흡탈착으로 전기가 생산되어서 리튬이온 전지보다 수명이 훨씬 긴 반면 공기 중 폭발 가능성이 낮아 안전하나, 아직까지는 에너지밀도가 낮아 용량이 작은 한계가 있어 급속 충·방전이 필요한 저장 시스템으로 에너지량은 적지만 에너지 저장 기간이 오래 걸리는 산업 용도로 활용됨
			냉온열에너지저장 (C1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온열에너지저장은 열에너지 수요와 공급을 시간, 공간 및 수량상 매칭시켜 열에너지가 필요한 시기에 사용하기 위해 저장하는 기술임 ▣ 생산된 잉여 에너지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사용하는 그리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일종인 '열에너지 네트워크'의 기반이 되는 기술임 ▣ 생산단계 및 소비단계에서 적용되어 열에너지의 공급 관리와 수요관리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음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그린 뉴딜	에너지 (C)	에너지저장 (C12)	바이오배터리 (C1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배터리는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이 금속 촉매가 아닌 바이오, 즉 생체 촉매에 의해 반응하는 전기를 의미함 ▣ 폐수처리나 연료 생산에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소형 전자기기에 전원 공급용으로 배터리 개발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어 시장 성장이 예상됨 ▣ 환자 체내 이식형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센서나 송수신 장치와 같은 휴대용 저전력 전자기기, 물 정화, 바이오디젤 생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은 기술로 인식되고 있음
			배터리에너지관리체계 (C1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터리에너지관리체계는 배터리를 보호하고 관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나 기술을 총칭하며, 배터리를 최적으로 관리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수명을 연장해주는 역할을 함 ▣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ESS) 및 자동차용 리튬이온배터리에 주로 적용됨 ▣ 배터리의 전압, 전류와 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과도한 충전 또는 방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배터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여줌 ▣ 전동화 자동차의 주행거리 증가를 위해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음
			레독스 흐름전지 (C1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독스 흐름전지(Redox Flow Battery)는 카본 및 금속계 전극소재, 유기 및 무기 전해질, 분리막, 분리판 등으로 구성되어 전해액에 포함되어 있는 활성물질의 산화 및 환원 반응을 통해 활성물질의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저장시키는 장주기형 전력 저장용 이차전지로, 전지의 적층 기술을 포함하여 2만 싸이클 및 20년 이상의 안정된 수명 특성을 가지고 있고, 출력과 에너지 밀도를 독립적으로 각각 설계할 수 있어서 4시간 이상의 출력 지속시간이 가능함 * 전지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활성물질(Redox Couples)만 전극에서 반응하는 특징을 보이며, 대표적인 이온은 바나듐(Vanadium) 이온임 ▣ 리튬이온배터리에 비해 대용량화가 가능하고 안정성이 뛰어나며 장주기화에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태양광발전,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하여 장주기 ESS용으로 연구개발되고 있으며, 시장 및 수요처를 확대 및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MW급 대용량 시스템 구축시 전지의 스택 및 소재, 부품의 대면적화, 박형화 및 저가화가 필요함 ▣ 중소형은 가정, 상업, 공장 등의 Power Backup용이고 대형은 분산발전전력저장(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및 산업시설의 대규모 전력저장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그린 뉴딜	에너지 (C)	에너지효율향상 (C13)	가정용에너지관리 (C13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용 에너지관리는 가정의 에너지 소비를 제어하고, 측정하고, 관리하는 장치 및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함 ▣ 에너지 소비 패턴에 대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게 하여 에너지 절약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핵심적인 장치로는 스마트 미터, 스마트 온도조절장치 등이 있음
			제로에너지빌딩/ 친환경에너지타운 (C13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로에너지빌딩은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단열 기술을 바탕으로 에너지 절감을 극대화한 건물을 말함 ▣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기피·혐오시설, 유흥시설 등에 에너지 자립, 문화 관광 등을 가미한 주민 수익모델사업을 의미함 ▣ 제로에너지빌딩/친환경에너지타운 주요 품목에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컨설팅, 패시브-단열 성능, 외부차양/액티브-신재생에너지, 고효율 설비, BEMS-에너지관리시스템, 제로에너지 빌딩 자재·성능인증 서비스, 제로에너지 빌딩 맞춤형 모델 등이 있음
			폐열회수 (C13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열회수란 산업공정이나 설비 가동 중 버려지는 열(Heat), 즉 폐열을 회수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다른 응용분야에 이용하는 기술 및 시스템을 말함 (예시)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지역난방에 활용하는 제품으로는 히트 펌프, 축열기, 열교환기 등이 있음 ▣ 폐열회수시스템을 통해 회수된 폐열은 보일러 급수 예열, 연소가스 예열, 발전, 기계 동력용 증기 생산, 공간 난방 등의 용도로 이용되며, 폐열 자원을 이용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연료비 절감 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
			독립형해수담수화 (C13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형해수담수화(Off-grid Desalination)는 외부 전력이 단절된 지역(Off-grid)에서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해수 또는 염분이 있는 물을 담수화하는 기술을 말함 ▣ 해수담수화 플랜트에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막 증발법(Membrane Distillation)* 등을 포함함 * 막 증발법 : 막(Membrane)을 통해 원수로부터 용수 염분을 분리 후 가열 및 증발시키고, 용수는 다시 냉각시켜 액체 상태로 만드는 과정
			지능형공조시스템 (C13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공조시스템(Smart HVAC*)은 난방, 환기, 에어컨 시스템의 관리에 있어 공조 설비 제어 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및 시스템통합기술(SI)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융·복합 제어기술을 말함 * HVAC(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난방, 통풍, 냉방) : 실내 및 자동차 환경의 안락을 위해 쓰이는 기술 ▣ 지능형공조시스템을 통해 실내 거주자의 쾌적성을 유지하면서도 냉·난방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음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그린 뉴딜	에너지 (C)	에너지효율향상 (C13)	분산에너지시스템 (C13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산에너지시스템은 전력 수요자 인근 지역에 설치 가능한 소규모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수요자에게 필요한 전력을 전량 공급하거나 이미 사용 중인 중앙 집중식 전력 공급 체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용도로 적용 가능한 발전 방식임 ■ 분산발전에 사용 가능한 발전설비의 크기는 용도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정용 단독 발전 시설용에 해당하는 수 kW 급으로부터 단위 지역 발전 및 냉난방용의 수십 MW 급(혹은 수백 MW 급) 정도까지를 분산발전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음 ■ 분산발전은 원거리에 위치한 대형 발전설비로부터의 송전에 의해서 공급되는 중앙집중형 발전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장거리 송전에 따른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수요처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 가능함
			스마트그리드 (C13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그리드란 전기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를 제공, 활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전기 공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함 ■ 전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하여 전력망을 고도화하여 고품질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특징을 가짐 ■ 기존 전력망은 최대 수요량에 맞춰 예비율을 두고 일반적으로 예상 수요보다 15%정도 많이 생산하지만, 스마트그리드는 각종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기량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효율을 높여 에너지 낭비를 막음
			가상발전소 (C13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발전소(Virtual Power Plant)는 다양한 유형의 분산형 자원을 ICT를 이용하여 통합운영함으로써 중앙급전 발전기와 같은 운영상의 공급 유연성과 제어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임 ■ 소규모 분산형 자원은 중앙 계통에서 개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하지만, 이들을 하나의 발전 프로파일로 통합하여 계획 발전량, 증감발률 전압 제어 능력, 예비력 등을 가시화할 수 있다면 중앙급전 발전기로의 활용뿐만 아니라 전력 시장에서의 전력거래 또한 가능할 수 있음 ■ 향후 발전산업은 석탄, 가스 등 중앙집중형 발전방식에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기술, IT기술 등을 활용, 소비자의 수요 변동에 대응해 전기를 서비스하는 가상발전소 형태로 전환될 전망
환경 ·지속가능 (D)		스마트팜 (D14)	농업용미생물 (D14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미생물은 토양 내 성분을 비료화하거나, 병과 해충을 억제하여 화학비료와 농약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술을 말함 ■ 최근 발효식품에 적용하여 식품의 질을 높이고 표준화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미생물이 개발되고 있으며, 병해충 방제 미생물제는 증량제와 혼합한 제품으로 생산 가능함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그린 뉴딜	환경 ·지속가능 (D)	스마트팜 (D14)	생물비료 (D14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비료는 바이오 유래 화합물, 첨가제 및 생분해성 화합물을 사용하여 제조된 친환경 비료임 ▣ 20세기 중반부터 화학비료의 사용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질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화학비료는 농경지의 축열량에 영향을 미쳐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킴
			곤충사육 (D14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곤충사육은 식용, 사료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곤충을 사육하는 산업 및 기술을 총칭 (예시) [곤충 활용 분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용: 벅스푸드 등 대체육, 숙취해소제, 단백질보충제 등 보조식품 2. 사료용: 개, 조류, 파충류 등 애완동물사료, 양계, 양식 등 배합사료 3. 의료소재용: 피브로인 소재 누에 등 ▣ 최근 미주, 유럽의 곤충 사육 트렌드는 음식물 쓰레기(과일, 곡류 등 비동물성 부산물)를 활용하고, 곤충 배설물을 활용하여 친환경 비료로 생산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감소와 친환경농업의 기반 산업으로 진행 중임 ▣ 곤충 사육에 스마트화는 현재 초기 단계이나 전통적 방식 대비 노동력 절감 효과가 70%, 소득 향상 효과가 30%에 달하며, 곤충 사육을 통한 단백질 생산은 전통적인 우육 생산 대비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 ▣ 자원순환 측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곤충 먹이, 곤충 배설물, 친환경 비료, 식량 생산, 인간 소비의 순기능의 고리 역할이 기대됨
			스마트종자 개발·육종 (D14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종자는 기존 노지 및 시설 종자 대비 스마트팜 구조와 시설에 맞춘 맞춤형 종자로써 수확량 Max-Min Gap 감소, 스마트팜 시설에 맞춘 온습도 적응, 수분 필요량 조절, 병충해 적응 문제 적용에 따른 농약 살충제 최소화 등에 초점이 맞추어짐 ▣ 전용 종자 개발은 전통육종의 한계 극복 및 스마트팜 규격에 표준화된 종자 우선권 확보가 목표 ▣ 특히, 수직 농법 등은 신규 농법에서 기술의 역량으로 기존 종자의 물 사용량보다 90%까지 절감할 수 있으나, 전용 종자 개발 시, 물 사용량을 더욱 줄이고, 일정한 수확량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음 ▣ 종자(육묘) 산업은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 군으로 향후 식량안보를 위해 반드시 집중 육성해야 할 사업 부문이며, 특히 스마트팜 분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노지 종자의 권리 획득보다 스마트팜 및 미래 정밀농업에 필요한 종자권을 우선 확보하여 식량 안보 유지와 저탄소, 저농약, 저화학비료 등 시대적 요구에 맞추기 위한 산업 발전 투자를 실시해야 함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그린 뉴딜	환경 ·지속가능 (D)	환경개선 (D15)	정삼투 (D15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삼투는 반투과성막을 사이에 두고 고농도의 유도 물질(draw solution)을 해수와 접하게하여 해수 중의 담수를 유도 물질로 흡수시킨 후 유도 물질에서 다시 담수를 분리하는 해수담수화 기술로, 기존의 역삼투(Reverse Osmosis) 방식과는 반대의 원리로 염을 분리하는 기술을 말함 ▣ 정삼투 기술은 역삼투와는 달리 강제로 압력을 가해 주지 않아 에너지 효율이 좋으나 염과 담수를 분리하기 위한 유도 물질에 대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함
			바이오필름수처리 (D15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필름수처리는 모래, 자갈, 쇠석(碎石) 등 여과재에 하수를 투과시키는 과정에서 여과재 표면에 바이오필름(생물막) 형태로 성장시킨 미생물을 이용하여 수처리하는 방법으로, 미생물이 하수에 포함된 오염 물질을 흡착, 여과, 분해하여 물을 정화하는 방식임 ▣ 하수와 바이오필름의 상호 접촉 방식에 따라 살수여상법, 접촉산화법, 회전원판법, 침적여과형의 호기성여상법 등이 있음 ▣ 유입 하수에 의해 미생물이 스스로 증식하고, 다양한 후생동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높은 수처리 효율과 질산화가 가능하며 침전물의 생성량이 적음 ▣ 미생물이 여과재 표면에 미생물층(생물막)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분리막의 세공이 막혀 여과 속도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오염된 분리막을 물리적으로 세척하거나 화학약품을 이용해 제거하는 기술이 적용되고 있음
			친환경공조시스템 (D15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공조시스템이란 기존 증기 압축식공조시스템의 프레온계 냉매(염화불화 탄소계열)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공조 시스템을 의미함 ▣ 국내외적으로 친환경 및 고효율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냉매의 사용, 부품의 고효율화, 저소음화 등의 기술력을 보유해야 함
			기름유출방제 (D15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름유출방제는 기름유출 관리에 사용되는 기술을 총칭하는 것으로 해양학, 선박 공학, 환경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복합 기술이 요구됨 <p style="margin-left: 20px;">(예시) 유희수기는 바다에 유출된 다량의 물과 기름을 분리하는 장비로 나노기술을 적용하여 높은 기름 흡입률을 보이며 방제효율을 높임</p>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그린 뉴딜	환경 ·지속가능 (D)	환경개선 (D15)	대기오염관리 (D15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오염관리란 소각장, 발전소 및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발생하는 분진 및 유독 가스,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저감시키는데 요구되는 기술을 말함 ▣ 대기오염 방지 기술은 발생원에 따라 흡수법, 흡착법, 연소법 등이 있으며, 대기 오염방지시스템 기술로는 발전소 및 자동차 배기가스 등 배출원에 따라 탈황, 탈질,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 기술 등이 있음 ▣ 정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규제 강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관심 증가로 인해 질소산화물, 황화합물 등의 유해가스 제거 또는 흡착 기술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배출원관리 (D15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배출원 관리란 화학연료 연소로 인해 발전소, 제철소 및 시멘트 공장 등에서 대량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기술을 말함 (예시) 이산화탄소 포집에는 연소 전(Pre-Combustion) 및 연소 후(Post-Combustion)포집과 순산 연소(Oxy-fuel Combustion) 방식 등이 있음 ▣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해양, 지중, 지표 등에 저장될 수 있으나, 해양저장은 생태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지표 저장은 이산화탄소를 고착화시킨 광물의 저장소 문제 등으로 인해 초기 단계임 ▣ 지중저장은 육상 해저의 깊은 지층에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것으로, 위치에 따라 폐유정/가스전, 폐석탄층 및 대수층 저장 등이 있음
			토양정화 (D15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정화는 생물학적 또는 물리·화학적 처리 방법으로 토양 중의 오염 물질을 감소·제거하여 오염 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기술을 말함 ▣ 토양오염 처리는 폐기물 저장 지역, 지하 유류 저장고의 유류 유출 지역, 지하수 오염지역, 미관리된 유해 물질 방출 지역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음 ▣ 다양하게 개발되어 현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오염토양 및 오염물질의 특성 등에 따라 단일 기술로 적용하거나, 여러 가지 기술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기도 함
			원전플랜트 해체 (D15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전플랜트 해체란 원자력 시설의 사용연한이 종료되는 단계에서 취해지는 일련의 모든 기술을 말하며, 수명이 종료된 원자력발전 시설 해체 시 작업자 및 일반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작업하는 것이 중요함 ▣ 원전플랜트 해체는 크게 발전소 영구 정지, 해체 준비(5년), 제염, 해체(절단 및 철거), 폐기물 처리(10년), 환경복원(5년)의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해체 완료까지 2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임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그린 뉴딜	환경 ·지속가능 (D)	환경개선 (D15)	통합환경관리서비스 (D15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환경관리서비스(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ervice)는 사업장 내에서 매체별로 관리되던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의 사전적 발생을 예방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내외 환경규제, 매체별 관리법/제도, 기업 사례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관리 대상 환경매체 선정, 환경성과 관리 지표 개발 등 최적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 산업 활동에 수반되는 수질, 대기, 토양 등에 미치는 오염 영향을 총체적으로 최소화하고, 하나의 사업장에 매체 종류별로 분화된 오염원의 규제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접근 방식임 ▣ 환경규제의 다양화, 전과정화, 통합화에 따라 개별 기업에서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어 이에 대한 통합적 관리 솔루션 제공 서비스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자원효율관리서비스 (D15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 효율관리 서비스(Resource efficiency management service)는 자원 효율관리 시스템*에 관한 이론 및 실무 역량을 보유한 전문 기업(REMCO**)이 중소 제조기업의 공정진단에서 개선 솔루션 도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컨설팅 활동을 말함 <li style="padding-left: 20px;">* 자원 효율관리시스템 : 자원 소비/배출 측면에서 기업 생산 전과정에 대한 체계적 자원 관리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관리기법 <li style="padding-left: 20px;">** REMCO : 전문 교육 커리큘럼 이수 및 관련 분야 실무경력기준을 충족한 전문가를 확보한 환경컨설팅 기업 ▣ 서비스를 받은 기업은 생산공정 최적화를 통한 원자재 사용량 절감, 폐기물 최소화 등을 통한 경제적·환경적 개선 성과를 창출하고 전문 기업(REMCO) 입장에서는 중소 제조업체 중심의 민간 주도형 자원 효율관리 서비스 新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친환경 패키징 (D15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패키징(eco-packaging)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최종 처리(매립)까지 전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등 환경오염 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하는 포장재 또는 포장 기술을 의미하며, 단순히 포장재의 중량이나 부피를 줄인 포장재 또는 그 기술은 제외함 (예시) 퇴비화 포장재(compostable package), 생분해 포장재(biodegradable package), 재활용 가능 재질 포장재(recyclable package) 등 ▣ 기존의 포장기술이 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의 중량이나 부피 등을 줄이는 방법에 집중한 반면 친환경 패키징은 제품을 생산하는 생애 전 주기를 분석(Life Cycle Inventory Analysis)하고 평가(Life Cycle Assessment)하여 자원 소비, 온실가스발생, 환경오염 유발 요소 등을 고려함 ▣ 친환경 활동을 추구하는 기업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더 많은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고 더 많은 패키지 구성 요소를 재사용하고 있어 해당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 중임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그린 뉴딜	환경 ·지속가능 (D)	환경개선 (D15)	유니소재화 제품 (D15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소재화 제품(uni-materialized product)이란 제품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영향 저감과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재 종류의 수를 줄이고 재활용이 용이하게 제품 구조를 개선하는 제품을 말함 (예시) 우레탄 소재의 유니타이어, 생활용품 용기의 소재 단일화, 공기청정기 팬의 소재 단일화, 전기전자제품 외관소재의 단일화 등 ▣ 자동차 부품을 시작으로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포장재, 건축자재 등 전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음 ▣ 제품 개발로 자원순환, 에코디자인 관련 규제 대응 비용 절감 및 기존 제품 대비 CO2 발생량 저감, 재활용률 향상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음. 또한 재활용 용이한 제품 개발을 통해 폐기단계에서 물질 재활용이 가능한 원료 증가로 재자원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환경보호 (D16)	전자폐기물 업사이클링 (D16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폐기물 업사이클링(Upcycling*)이란 디자인과 활용성을 가미하여 전자폐기물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드는 기술로, 폐기물을 질적·환경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가진 새로운 물질이나 제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포함함 * Upcycling : Upgrade + Recycling ▣ 자원순환형 사회를 위한 새로운 재활용 패러다임으로 업사이클링 산업이 등장하였으며, 업사이클링을 통한 자원순환의 경우 더욱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함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D16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라스틱 업사이클링이란 플라스틱 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환을 통해 성능을 향상 시키거나 환경 친화적으로 가치를 더하는 기술을 말함 (예시) 물리적 변화 방법으로 트럭의 방수포를 이용하여 방수 가방을 만드는 것이 있고, 화학적 변화 방법으로 버려진 비닐이나 폐플라스틱 속에 있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 High-density polyethylene)이나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 Lowdensity polyethylene)을 고부가가치의 탄소 나노 튜브로 전환시키는 기술 등
			방사성폐기물처리 (D16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성폐기물 처리는 핵연료와 같은 방사능 물질이 사용되고 있는 원자력발전, 의료시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방사성폐기물을 적절히 분리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함 ▣ 국내 방사성폐기물은 대부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사용 후 핵연료를 제외하고 모두 중·저준위 폐기물임 ▣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은 방사능 안전여부 관련한 불안이 높기 때문에 건설 입지에 주민들을 설득하는 일이 어려워 국내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은 관련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조속한 입지 선정도 중요한 과제임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그린 뉴딜	환경 ·지속가능 (D)	환경보호 (D16)	폐자원에너지 (D16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자원에너지는 가연성 폐기물, 고함수율 유기성 폐기물, 매립가스, 산업 폐가스를 열화학적 및 생물화학적 방법으로 열 또는 전력 등 에너지화하는 기술이며, 사업장 또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혹은 폐자원을 연료 및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임 ▣ 가연성 폐기물 중 고에너지 함량의 폐기물에 대한 열분해를 통한 오일화, 고체연료의 제조기술, 가스화에 의한 가연성 가스 제조기술 및 소각에 의한 열회수 기술 등이 있음 ▣ 폐자원에너지의 종류에는 폐기물 고형연료, 목재칩 및 펠릿, 열분해 유화, 폐기물 가스화, 바이오가스화,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목재 기술 등이 있음
			막여과폐수처리 (하폐수처리수재사용, 수생태계복원) (D16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막여과폐수처리는 하수, 폐수를 필요 수질로 처리하여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유지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기술로,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고 보전시키기 위한 기술을 총칭함 (예시) 역삼투막(RO:Reverse Osmosis Membrane), 나노여과막(NF:Nanofiltration Membrane), 한외여과막(UF:Ultrafiltration Membrane), 정밀여과막(MF:Microfiltration Membrane), MBR 등의 기술이 연관됨
			소음관리 (D16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관리란 소음 진동 발생원을 모니터링하여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관리하는 기술을 총칭함 (예시) 소음 모니터링을 위한 환경 측정 및 센서 기술, 실시간 정보 제공을 위한 IoT 기술 등
			실내공기질 관리 (D16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공기질 관리란 실내 오염원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함 ▣ 실내 체류시간 증가, 새집 증후군 등 환경성 질환 급증으로 실내 오염원 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
			도시광산 (D16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광산(Urban mining)은 폐기물(고철, 폐가전 등)에 축적된 금속자원을 회수하여 산업원료로 재공급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일례로 Battery Recycling Technologies(배터리 회수 및 재생기술)과 같이 금속자원 중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의 금속자원을 회수하는 것을 들 수 있음 ▣ 리튬, 코발트 등의 희소금속 가격 급등, 자동차 부품의 전자화 가속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생태계 구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그린 뉴딜	환경·지속가능 (D)	환경보호 (D16)	재제조 (D16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제조(Remufacturing)는 사용 후 제품(부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보수 조정, 재조립, 최종 검사 등 일련의 공정을 거쳐 원래 제품(부품)의 성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만드는 기술 및 이를 활용한 제품을 말함 (예시)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건설기계, 재제조 토너 카트리지, 재제조 복사기, 스펙업 재제조 디젤엔진 등 ■ 기계식 부품 중심 시장에서 전자화 부품으로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있으며, 의료기기, 철도차량, 군수장비, 중장비 등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확산 중임 ■ 재제조는 분해, 세척, 재조립 등 수작업 공정이 대부분인 노동집약적 생산 방법으로 일반 제조업 대비 3배가량 고용창출 효과가 있음 ■ 재제조는 원료는 사용 후 제품(부품)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신제품 생산 대비 자원 및 에너지 사용량을 80% 낮출 수 있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제품 수명 연장을 통해 폐기물로 배출되는 시기는 최대한 늦출 수 있음
			신재생발전시스템 재자원화 (D16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발전시스템 재자원화는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이 노후화되거나 고장이 발생했을 때 단순 해체나 폐기 등이 아니라 핵심부품 성능 효율화, 재사용, 필요 소재 회수 등의 과정을 통해 재자원화 하는 방법을 의미함 ■ 풍력발전 재자원화는 노후 풍력발전기를 해체 및 폐기하지 않고 블레이드, 터빈, 인버터 등 주요 핵심부품의 성능을 기존 대비 고효율화하여 풍력발전시스템의 수명을 극대화하거나 폐 블레이드·터빈·인버터 등을 이용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repurposing 기술 등이 포함됨 ■ 태양광 패널 재자원화는 효율 저하, 고장 등으로 발생된 태양광 폐패널로부터 유가 금속을 회수하거나 태양광 폐패널을 그 자체로 재사용할 수 있는 기술 또는 그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의미하며, 태양광 폐패널의 회수, 전처리(물리적, 화학적), 금속 회수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업종을 포함함 ■ 신재생발전시스템은 1세대 시스템의 수명이 다해감에 따라 노후화된 시스템의 효율적인 처리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이 활발해지고 관련 정책들이 논의 중에 있어 향후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그린 뉴딜	건강 ·진단 (E)	친환경소비재 (D18)	유전자화장품 (E18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전자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 의약품은 제외함 (예시) DNA 분석, 피부진단을 통한 개인 맞춤형 화장품, 유전학 관련 기술을 도입한 기능성 화장품 등 ▣ 유전자화장품 제조 기술의 대표적인 원료는 EGF(상피세포 성장인자)로, 유전자 재조합과 미생물 배양을 거쳐 생산됨
		차세대치료 (E19)	개량신약 (E19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량신약이란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복약 순응도, 편리성 등)에 있어 이미 허가(신고)된 의약품에 비해 개량되었거나 의약기술에 있어 진보성***이 있다고 식약청 등이 인정한 의약품을 말함 * 안전성, 유효성 개량 : 효능 증대 또는 부작용 감소 ** 유용성 개량 : 투여방법이나 투여 횟수 등의 개선 *** 진보성 : 제제개선 등 의약기술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오리지널 신약에서 화학적 구조나 제제 등을 변형하여 효능 증대 또는 부작용 감소, 투여 방법이나 투여 횟수의 개선, 염변경 및 제제개선 등으로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음 ▣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효과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개량신약이며, 기존 제품보다 복용 편의성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복제약과는 다름
			혁신신약 (E19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신약은 기존의 약과는 다른 새로운 타깃이나 기전을 통해 작용하는 현존하지 않는 새로운 First-In-Class(FIC) 신약을 의미하며,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주로 단백질)을 밝혀내고 이를 치유하는 후보물질의 탐색을 거쳐, 동물실험을 하는 전임상, 안전성과 약효를 검증하는 임상 1, 2, 3 단계를 거쳐서 출시됨 ▣ 위산분비 억제제인 '잔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인 '타미플루', 만성백혈병 치료에 쓰이는 '글리벡' 등이 대표적인 혁신신약이며 장기간의 개발기간이 소요되고 임상실험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어야 하지만 신약 개발이 성공할 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꾸준한 신약 개발 수요가 존재함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그린 뉴딜	정보통신 (F)	실감형콘텐츠 (F28)	스마트홈 (F28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홈은 주거환경에 IT를 융합하여 국민의 편익과 복지증진,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간 중심적인 스마트 라이프 환경(스마트 가전, 통합 플랫폼 구축 서비스)을 의미함 (협의) 홈 서버, 정보가전, 융합 단말 등 가정 내 요소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모니터링, 제어 및 작동하는 제품, 서비스, 솔루션 등을 총칭 (광의) 최근 스마트홈은 홈네트워크라는 협의의 개념에서 벗어나 보안과 에너지 관리, 오피스, 서버, 엔터테인먼트까지 융합한 통합 플랫폼의 형태
	전기·전자 (G)	차세대 반도체 (G32)	전력반도체소자 (G3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반도체소자는 전력 장치용의 반도체 소자로 전력 변환이나 제어용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전력 전자공학의 핵심 소자임. 일반적인 반도체 소자에 비해서 고내 압화, 큰 전류화, 고주파 수화된 것이 특징임 ■ 기존 실리콘 반도체 소자의 한계(스위칭 손실, 스위칭 속도, 내환경성 등의 문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반도체 소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탄화규소(SiC: Silicon Carbide) 와 질화갈륨(GaN: Gallium Nitride) 등 화합물 반도체가 부상하고 있음 (예시) [탄화규소 전자소자] 규소와 탄소의 인공 화합물인 탄화규소를 활용한 소자로, 넓은 에너지 밴드폭, 높은 항복 전압, 우수한 열전도도 등이 특징임 [질화갈륨 전자소자] 넓은 밴드 갭, 높은 항복 전압, 낮은 온저항, 빠른 스위칭 속도의 특성을 지고 있어 차세대 화학물 반도체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음. 저전압 응용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전원 공급장치, IDC (인터넷데이터센터), 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차에 적용될 전망임
		능동형조명 (G35)	OLED(LED)조명 (G35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LED조명은 유기물 박막에 전류를 흘려 발광하는 OLED(Organic Light-Emitting Diode)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조명으로 LED보다 우수한 연색성, 유연성 등을 바탕으로 차세대 조명 기술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OLED 조명은 LED조명에 비해 효율 및 공정 단가 측면에서 열위한 편이나, 면광원으로 디자인 자유도가 높고 IT 기술과의 접목 등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 독자적인 시장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LED조명은 전기로 빛을 발하는 LED 소자를 이용한 조명 방법. LED의 발광 원리를 이용하여 색의 기본 요소인 적색, 녹색, 청색에 백색까지 다양한 색의 빛을 만들 수 있으며, 기존 조명기구보다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수명도 길며, 형광등처럼 수은 등 유해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인식됨

구분	테마	분야	품목(코드)	설명
그린 뉴딜	전기·전자 (G)	능동형조명 (G35)	스마트조명 (G35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조명(Smart Lighting)은 단순 On/Off 기능을 제공하던 조명기구에 ICT 기술을 접목시켜 맞춤형 기능을 제공하는 사용자 친화적 능동 조명 시스템을 의미함 ▣ 스마트조명은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수의 전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용자 움직임 및 환경을 감지하여 그에 적합한 조명을 자동으로 연출하는 신개념의 조명 시스템임 ▣ 백열전구, 형광등과 같은 기존 전등과 달리, LED 전등은 실내외 상황에 맞게 빛의 특성(색온도, 광량, 광색 등)을 제어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어 스마트 조명에 주로 적용되고 있음 ▣ 스마트조명은 LED 등 광원을 포함하는 전등, 실시간 환경을 감지하는 센서, 센서로부터 수신된 정보에 근거하여 다양한 기능이 실행되도록 유/무선으로 전등을 제어하는 컨트롤러로 구성됨
	센서·측정 (H)	객체탐지 (H38)	비접촉모니터링 (H38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접촉모니터링이란 비접촉 센서(Non-contact Sensor), 광기술(Optical Technology) 등을 이용하여 피측정물의 물리량을 비접촉 방식으로 획득하는 기술을 말함 ▣ 비접촉 센서 및 광기술을 이용하여 계측하는 물리량으로는 온도, 변위, 길이, 전자장 등이 있음 ▣ 비접촉 센서 기반 모니터링에는 초음파, 적외선 및 UWB 등의 기술을 활용하며, 광기술 기반 모니터링에는 광원·광센서 등 광부품을 활용함 ▣ 비접촉모니터링은 인체에 접촉하지 않고 생체 정보를 측정하는 헬스케어 분야, 검사 대상에 훼손을 가하지 않고 형상 측정 및 검사를 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검사 분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주)◇◇◇ 뉴딜 품목 검토서 (예시)

(202X. . .)

기관명 : ○○○○○○○○

담당자명 : (☎)

□ 회사 개요

(단위 : 억원)

회사명	(주)◇◇◇		설립일자	2000.XX.XX
대표자	○○○		기업규모 (자본금)	중소기업 (50)
업종(업종코드)	자동차부품제조업 (CXXXXX)			
주요제품	자동차부품		신용등급	BBB+
소재지	경남 XXX XXX		대주주	XXX (00.0%)
재무현황 (최근년도)	자산	부채	매출액	당기순이익
	600	300	320	15

□ 뉴딜투자 공동기준 부합여부

분야/품목*	차세대동력장치 / 전기차/하이브리드
사업명 (보유기술명)	전기자동차용 MSO코일 제조 및 판매 (3차원 형상을 가지는 MSO코일 제조기술)
사업개요 (기술개요)	전기자동차 전기모터 부품인 MSO코일 제조공장 신축

* [별첨1] '뉴딜분야 및 품목 설명'을 참조하여 해당 분야 및 품목 기재

□ 검토의견

- 당사는 '20.XX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자체 기술개발연구소를 통해 개발한 전기자동차용 MSO코일 사업화를 위해 제조공장 신축을 추진 중에 있는 중소기업임
- 본건 계획제품인 MSO코일은 전기차의 1회 충전당 주행 거리를 늘리는데 있어 핵심기능을 하는 전기자동차용 부품인 바, 뉴딜투자 공동기준 중 '차세대동력장치(분야)-전기차/하이브리드(품목)'에 해당(후방산업)되는 것으로 판단됨

「뉴딜투자 공동기준」 신규 품목 추천서

(202X. XX. XX)

신청인

소속기관		성명	
------	--	----	--

추천 품목

구분	디지털 뉴딜 또는 그린 뉴딜
추천 분야/품목	(분야명) / (품목명)
품목 설명	
추천 사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디지털·뉴딜 세부과제와 연관성 및 품목 추가가 필요한 사유에 대해 기술

※ 본 자료는 실제 정책금융기관 영업점 RM과의 상담사례를 재구성하여 작성한 것으로 뉴딜투자 공동기준 적용 여부 판단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 「뉴딜투자 공동기준」은 어떻게 수립되었나요?

☞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토대로 정부부처, 정책금융기관, 산업계와 금융투자업계 등 업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투자 분야 및 품목을 선정하였으며, 향후에도 산업·기술·시장 트렌드 변화와 현장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투자 분야 및 품목은 지속 조정 예정입니다.

* 정책금융기관 등이 산업분야별 전문가 델파이조사·리서치 등을 거쳐 미래 유망 산업 분야를 선별한 공동 매뉴얼 → 현재 성장지원펀드 등 투자운용사의 투자 대상 선별 기준, 혁신성장 분야 자금지원 기준으로 활용중

Q2. 「뉴딜투자 공동기준」은 어디에 활용되나요?

☞ 뉴딜투자 공동기준은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대상 선별 및 자산운용 기준으로 활용되며, 정책금융기관의 뉴딜분야 금융지원(투·융자, 보증 등) 기준으로도 활용됩니다.

Q3. 「뉴딜투자 공동기준」 적용 가능 여부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 프로젝트 또는 회사 영위사업(또는 보유기술)이 「뉴딜투자 공동기준」 품목 설명 내용과 부합하면 적용 가능하며, 전방·후방·계획사업의 경우에도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Q2~3 참고)

Q4. 「뉴딜투자 공동기준」 품목의 전·후방 산업에도 적용 가능한가요?

☞ 프로젝트 또는 회사 영위사업(또는 보유기술)이 품목의 전·후방 산업에 해당되고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 (후방산업) 「뉴딜펀드 투자기준」 품목 관련 핵심 기술·소재·부품 (범용성 부품 등은 적용 제외)
- (전방산업) 「뉴딜펀드 투자기준」 품목을 활용한 사업영위 (도·소매, 운송 등은 제외)

Q5. 「뉴딜투자 공동기준」 품목을 개발 중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가요?

☞ R&D실적(특허 출원, 정부인증 등)을 바탕으로 해당 품목이 실용화 단계에 있을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실용화 단계는 산업특성에 맞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 (예시) 제조업의 경우 R&D를 통해 해당 제품이 양산 준비단계에 있어야 하며, 제약·바이오 업종의 경우 특허를 취득하고 신약 후보물질을 도출했거나 전임상 시험에 진입한 경우를 실용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Q6. 프로젝트 또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또는 보유기술) 중에 2개 이상의 품목이 「뉴딜투자 공동기준」에 해당할 경우 어떻게 적용하나요?

☞ 적용 가능한 품목이 복수일 경우에는 프로젝트 또는 기업의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만약, 동일한 비중일 경우에는 어느 품목을 적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Q7. A사는 순수지주회사로 자회사들로부터 배당을 주수입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A사의 자회사 중에 「뉴딜투자 공동기준」 품목을 영위하는 기업이 존재할 경우, A사도 「뉴딜투자 공동기준」 적용이 가능한가요?

☞ 「뉴딜투자 공동기준」은 프로젝트 또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단위별로 적용해야 하므로, A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 「뉴딜투자 공동기준」 품목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A사를 투자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자회사에서 「뉴딜투자 공동기준」 해당 품목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여 법인격이 다른 지주회사에 「뉴딜투자 공동기준」 품목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Q8. 전기차/하이브리드의 1회 충전당 주행거리를 향상시키는데 있어 중요 부품인 MSO 코일을 자가공장에서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B사에 대한 지분투자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B사에 대해 「뉴딜투자 공동기준」 중 '전기차/하이브리드' 품목 적용이 가능한가요?

☞ B사는 자동차 엔진부품 제조업체로서, 동사가 생산하는 MSO 코일은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고출력/고효율화에 핵심적인 부품으로 '전기차/하이브리드' 품목의 후방산업에 해당되므로 B사에 대해서는 '차세대동력장치(분야)-전기차/하이브리드(품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Q8. C사는 복합비료를 생산 중인 업체로 친환경 비료 R&D를 통해 관련 특허 및 인증을 획득한 후, 친환경 비료 생산설비 확충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뉴딜투자 공동기준」 중 '생물비료(품목)' 적용이 가능한가요?

☞ C사는 「뉴딜투자 공동기준」 품목인 생물비료 관련 특허 및 R&D 실적을 보유하고 생물비료 생산설비 확충을 계획 중에 있어 실용화 단계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뉴딜투자 공동기준」 중 '스마트팜(분야)-생물비료(품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Q9. D사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회사로 자체 연구소에서 도출한 신약후보물질(유전자원 활용)을 바탕으로 개발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뉴딜투자 공동기준」 中 ‘혁신신약(품목)’ 적용이 가능한가요?

☞ D사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제조단계에 진입하지는 못하였으나, R&D 실적을 바탕으로 신약후보 물질을 도출하고 현재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어 실용화 단계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뉴딜투자 공동기준」 中 ‘차세대치료(분야)-혁신신약(품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Q10. E사는 지주사업, IT사업 등을 영위 중인 사업형 지주회사로 IT사업의 경우 다양한 솔루션 개발 및 통합 IT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뉴딜투자 공동기준」 中 ‘XaaS(품목)’ 적용이 가능한가요?

☞ E사는 지주회사 형태를 띠고 있으나, IT 사업부문에서 네트워크 효율을 향상시키는 자체 솔루션을 개발하여 다수의 기업 고객을 상대로 통합 IT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XaaS 품목 설명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뉴딜투자 공동기준」 中 ‘가용성장화(분야)-XaaS(품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Q11. F사는 스마트폰 및 차량에 사용되는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자체 개발한 렌즈와 각종 센서 등을 함께 모듈화하여 생산한 제품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F사에 대한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자 할 때, 「뉴딜투자 공동기준」 中 ‘고해상도 이미지센서(품목)’ 적용이 가능한가요?

☞ F사는 자체 개발한 고해상도 이미지센서 기술을 바탕으로 카메라 모듈을 생산·판매 중에 있으므로 「뉴딜투자 공동기준」 中 ‘감각센서(분야)-고해상도이미지센서(품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Q12. G사는 시트, 도어트림, 머플러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완성차 제조업체에 판매하고 있는 중견기업으로, 금반 전기차/하이브리드 제조업체와 신규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증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G사에 대해 「뉴딜투자 공동기준」 中 ‘전기차/하이브리드(품목)’ 적용이 가능한가요?

☞ G사 생산제품이 전기차/하이브리드 부품으로 사용되어 후방산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전기차/하이브리드의 핵심 부품이 아닌 일반 자동차의 범용성 부품으로 ‘차별성’ 요건을 확보하지 못한 바, G사에 대해서는 「뉴딜투자 공동기준」 中 ‘차세대동력장치(분야)-전기차/하이브리드(품목)’ 적용이 불가합니다.

Q13. H사는 폐기물 운송사업과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금반 바이오매스에너지 생산기업인 X사와 폐기물 운송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자금 충당을 위해 외부 투자를 유치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H사에 대해 「뉴딜투자 공동기준」 中 ‘바이오매스에너지(품목)’ 적용이 가능한가요?

☞ H사는 「뉴딜투자 공동기준」 품목 영위 기업(바이오매스에너지 생산기업)인 X사에 폐기물을 단순 운송해주는 회사로 공동기준 적용원칙에 위배되므로 「뉴딜투자 공동기준」 中 ‘신재생에너지(분야)-바이오매스에너지(품목)’ 적용이 불가합니다.

Q14. I사는 에어컨 모터를 생산하여 국내 대기업에 공급 중으로 동사가 납품하는 모터는 IoT 시스템이 적용된 에어컨 부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I사에 대해 「뉴딜투자 공동기준」 中 ‘스마트홈(품목)’ 적용이 가능한가요?

☞ I사가 생산·판매 중인 에어컨 모터는 IoT 시스템이 적용된 에어컨 뿐만 아니라 일반 에어컨에도 사용되는 범용성 부품으로 ‘차별성’ 요건을 확보하지 못한 바, 「뉴딜투자 공동기준」 中 ‘실감형콘텐츠(분야)-스마트홈(품목)’ 적용이 불가합니다.

Q15. J사는 전자기기 도매업을 영위 중으로 무선충전기가 상품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J사에 대해 지분투자를 검토하고자 할 때, 「뉴딜투자 공동기준」 中 ‘무선충전(품목)’ 적용이 가능한가요?

☞ J사는 무선충전기의 핵심 기술·소재·부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도매업을 통해 상품매출만을 창출하고 있어 공동기준 적용원칙에 위배되므로 「뉴딜투자 공동기준」 中 ‘웨어러블디바이스(분야)-무선충전(품목)’ 적용이 불가합니다.

Q16. K사는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영위 중으로 매장내 조명을 LED로 교체할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자금을 조달 중에 있습니다. K사와 같이 「뉴딜투자 공동기준」 품목을 단순 구입하는 경우에도 「뉴딜투자 공동기준」 中 ‘OLED(LED)조명(품목)’ 적용이 가능한가요?

☞ K사는 LED 조명 생산 관련 R&D 실적이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단순 구입·교체하는 것으로 ‘차별성’ 요건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바, 「뉴딜투자 공동기준」 中 ‘능동형조명(분야)-OLED(LED) 조명(품목)’ 적용이 불가합니다.

Q17. L사는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 중으로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폐기물을 적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땅에 묻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토양오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L사에 대해 「뉴딜투자 공동기준」 中 ‘토양정화(품목)’ 적용이 가능한가요?

☞ 토양정화는 생물학적 또는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으로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여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L사와 같이 토양정화 관련 기술을 보유하지 않고 단순 적재하는 것만으로는 ‘차별성’ 요건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뉴딜투자 공동기준」 中 ‘환경개선(분야)-토양정화(품목)’ 적용이 불가합니다.